

## 서울 매력·정체성 담은 새 '브랜드'로 글로벌 탑5 도시 도약

8월 16일 신청사에서 새 도시브랜드 'Seoul, My Soul(서울, 마이 소울)' 발표

시민은 물론 세계인에게 '서울'이 기쁨, 행복, 만족, 즐거움 등 다양한 마음이 모이는 도시로 기억될 서울의 새 도시브랜드가 탄생했다. 세계인의 마음속에 새겨질 한마디 바로 'Seoul, My Soul(서울, 마이 소울)'이다.

서울시는 16일 신청사(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의 새로운 도시브랜드인 'Seoul, My Soul(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시민 참여로 지난 3월 최종 선정된 슬로건인 'Seoul, My Soul(서울, 마이 소울)'에 디자인과 의미를 부여해 서울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담은 브랜드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의 가치 찾기' 단어 공모전을 열고 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정체성을 도출해낸 바 있다. 이후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 4가지 안에 대한 12차 선호도 조사를 통해 'Seoul, My Soul(서울, 마이 소울)'이 63.1%를 차지하며 최종 선정됐다.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과정을 거쳐 올해 5월 디자인 콘서트 선호도 조사와 브랜드 디자인 공모(23.5.-6.)를 병행, 시민 의견수

렴 및 전문가 검토·자문, 디자인을 보완하고 최종 브랜드를 완성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새 브랜드는 시민은 물론 외국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만의 다양한 매력과 시민의 마음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도시 이름인 'Seoul(서울)'을 전면에 배치하고, 마음(하트), 경험(느낌표), 즐거움(스마일)을 의미하는 그림문자인 '픽토그램'을 통해 주목도를 높였다. 전 세계인 누구나 브랜드에 담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경쾌한 색상의 픽토그램을 적용했다.

심장을 의미하는 '하트'는 서울을 향한 시민, 세계인의 애정과 관심, 즉 '마음'을 표현하고, 감탄을 표현하는 '느낌표'는 새로운 경험과 영감을 준다는 의미를 담았다. '스마일'은 서울 어디나 미소 짓게 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뜻을 더한다.

아울러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라는 한글 부제를 추가해 서울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고 서울을 향한 다양한 마음이 모여 더 좋은 서울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더했다.

시는 'Seoul, My Soul' 영문 서체·스타일과 통일감 있는 한글 디자인 "서울, 마이 소울"도 함께 개발해 한글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새 브랜드 'Seoul, My Soul(서울, 마이 소울)'을 시민뿐만 아니라 내·외국인에게 익숙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기존의 서울관광 브랜드(MY SOUL SEOUL(마이 소울 서울))를 변주, 도시의 널리 매력을 알리는데 대대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관광 브랜드인 'MY SOUL SEOUL(마이 소울 서울)'은 지난해 5월부터 국내·외 관광 홍보영상, 인쇄물 등에 활용되어왔으며 BTS가 출연해 1억부 이상 기록한 유튜브 콘텐츠(BTS With Seoul)에 삽입돼 외국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이번 브랜드 개발에 참여한 신규 브랜드 전문자문단 이종민 위원장(국민대학교 미디어 광고학부 교수)은 "기업이나 기관이 새 브랜드를 개발해 소비자에게 각인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기존에 호응이 좋은 브랜드를 발전시켜 활용하는 것은 시민이 이미

지에 익숙해지는 기간을 단축시켜 브랜드를 빠르게 안착시키는 효율적인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브랜드는 기존에 시민 호응이 높은 관광 브랜드(MY SOUL SEOUL(마이 소울 서울)), 시민 공모전 우수작 등 총 7점을 대상으로 서울브랜드총괄관 등 여러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됐다.

이번 브랜드 선정 과정에는 브랜드 슬로건 선호도 조사, 브랜드 디자인 시민 공모 및 투표, 브랜드·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을 포함해 85만여 명이 참여했다.

8월 16일 새 도시브랜드 발표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 시민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릴 예정이며 브랜드 발표를 비롯해 개발 경과, 의미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석자를 대상으로 신규 브랜드가 적용된 예코백·텀블러·인생네트 촬영쿠폰 등 스크래치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서울시는 향후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새 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서울 시장 홍보에 새 서울 브랜드를 적극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홍성태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새 브랜드는 단순히 홍보물에 사용되는 로고가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로 '서울'의 매력과 정체성을 표현하고, 도시이미지를 브랜딩(Branding)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Seoul, My Soul(서울, 마이 소울)'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정책 전반을 유기적으로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석 같은 도시 '서울'의 잠재력과 매력을 제대로 알리고, 글로벌 탑(Top)5 도시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은 필연적"이라며 "서울의 정체성 '서울다움'을 담은 새 브랜드를 통해 시민이 더 행복하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 브랜드가 다채로운 브랜딩과 마케팅 활동을 통해 해외관광객 유치는 물론 기업 투자 유치도 이끌어 낼 수 있는 도시브랜드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광수/기자



## 경북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동남아시아 시장 수출 날개 달았다

실라리안 기업 12개사 참가, 현지 바이어와 166건 수출상담  
현장 MOU 20건 통해 585만 달러 상당 수출협약 체결 성과  
이달형 경제부지사, "이번 무역사절단 추진성과 지속 관리, 현지 바이어와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 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다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0일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서울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용어 정의 명확화 및 실태 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조례 목적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년 이상이라는 기간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용어 정의를 상태 정의로 변경하고, 실태 조사의 정기적 실시(3년)와 의무적 실시를 규정했다.

또한, 지원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고립 청년 지원사업·시설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다양한 사유에 따라 복합적인 현상과 상태로 나타나기에 전문적이고 중장기적인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8월 28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 전남도, 매실 저온피해 농작물 재해보험금 37억 지급

농가 재해보험금 부담 10%로 낮춰 안정적 경영 지원

전라남도가 올해 상반기 이상기온으로 저온피해를 입은 매실재배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37억 원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에 나섰다.

전남에선 지난 4월 9일까지 3일간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착과 불량 등의 생육 불량 피해가 발생했다.

시군별로 광양 18억 900만 원, 순천 9억 7천800만 원, 보성 4억600만 원, 곡성 2억6천553만 원, 화순 1억 1천 283만 원, 고흥 7천766만 원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 면적은 광양 199ha, 순천 139ha, 곡성 47ha, 보성 17ha, 화순 16ha, 고흥 9ha 구레 3ha 등 전체 438ha 규모다.

광양의 한 매실 재배농가는 농가 자부담 22만5천 원으로 보험에 가입해 36배 많은 820만 원의 재해보험금을 받았다.

이번에 지급하지 않은 배와 사과 등 일부 품목은 농가별 지급액 산출을 통해 9월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농가 부담을 낮

추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췄다. 올해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70여 개 품목에 1천660억 원을 투입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변화로 재해가 일상화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므로 꼭 보험에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메니티장흥

# 2023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 KOREA INTEGRATIVE MEDICINE FAIR 2023

2023. 9. 8.(금) - 9. 14.(목) / 7일간 /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주최: 전라남도 JeollaNamdo, 장흥군 Jangheung County

주관: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추진위원회





# 이종환, 송현준 시의원, 교정시설 입지선정 기준 무시하는 부산시 규탄

교정시설 입지결정권자는 법무부,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협의주체  
책임과 권한없이 사회적 갈등·분열 조장하는 부산시 규탄



강서구 제1선거구 이종환 의원



강서구 제2선거구 송현준의원

부산시의회 이종환 시의원, 송현준 시의원은 최근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현대화 문제를 두고 주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것에 대하여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지난 5월 11일 부산시의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법적 근거 없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이라고 규탄한 바 있으며,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던 상황이다. 여론조사는 강서구, 사상구 각 500명, 기타 지역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될 계획으로당사자인 강서구 주민의 의견은 25%만 반영된다.

교정시설 입지결정권자인 법무부는 교정시설 입지선정 기준에 대해 '지역 주민 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즉,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협약이 가능한 후보지를 추천하면 법무부에서 입지결정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법무부의 확고한 기준은 역대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사례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 왔다. 청주여자교도소, 순천교도소, 서울남부구치소 및 교도소, 장흥교도소, 광주교도소, 서울동부구치소, 대구교도소 모두 기초자치체가 협의 주체가 되어 교정시설을 현대화한 사례들이다. 이종환, 송현준 시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인 부산시는 책임과 권한도 없이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서, "입지선정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견이나 부산시의 의견은 법적, 제도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고, 부산시는 시간 낭비, 예산 낭비를 일삼고 있으며, 현안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두 의원은 "부산시는 더 이상 권한없는 입지선정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과 부산시의 독단적 행정으로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부산시가 져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희태/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15일 오전 10시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이상일 시장, 김운봉 부의장,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 황재욱 문화복지위원장, 이진규 도시건설위원장, 김상수 윤리특별위원장 등 의원들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광복절을 축하했다. 윤원균 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오늘은 일제의 압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하고 우리 민족의 빛을 되찾은 지 78주년 되는 매우 뜻깊고 기쁜 날이다. 오늘 행사를 통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삼/기자



# 시흥시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7주년 기념행사 참석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023 고양 요넥스 국제 챌린지 배드민턴 대회' 고양체육관에서 열린다

경기 시흥시의회가 8월 15일 평화의 소녀상 건립 7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념행사에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송미희 의장을 비롯한 시흥시의회 의원들과 시흥시장, 국회의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시흥시지회, 관내 여성단체장,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에서 시의원은 차례로 소녀상에 헌화하고 묵념을 했다. 이어 시의원들은 바람개비에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적어 소녀상 주변 잔디밭에 꽂는 시민참여행사에 함께하며 소녀상의 의미를 되새겼다. 지난 2016년 8월 정왕동 육공공원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피

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정립하기 위해 시민 모금으로 마련됐다. 송미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시흥시의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며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수원시 현충탑 참배

수원특례시의회는 8월 15일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수원시 현충탑을 참배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과 이재식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현충탑 앞에서 묵념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린 후 헌화와 분향을 했다. 김기정 의장은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독립 유공자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마음 깊이 되새기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김기정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30여 명, 이재준 시장, 보훈 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김범삼/기자

# 화성시의회, 제78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 참석

제78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이 금일 15일 10시, 화성시 남양에 위치한 모두누림센터 누리아트홀에서 개최됐다. 본 경축식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오문섭 부의장, 유재호 운영위원장,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 이혜남 교육복지위원장,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 김종복·김영수·장철규·전성균·박진섭·배현경·위영란·공영애·배정수·명미정·송선영·이용운·김상균·이계철·임세덕 의원이 참석했다. 김경희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애국선열과 호국용사들이 뿌린 희생의 씨앗이며, 우리의 피와 땀으로 가꾸어 낸 소중한 열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78주년을 맞이한 광복절, 빛을 되찾은 그날의 감동을 간직하고 더 나은 100만 화성을 만들 수 있도록 화성시의회 또한 힘차게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축식은 퓨전국악클래식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 광복절 노래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독립운동 유가족(광복회 포함) 및 시민 100여명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양시현/기자



# 종로구의회, 종로 국제서당 여름캠프 수료식 참석



종로구의회는 지난 11일 개최된 종로 국제서당 여름캠프 수료식에 참석하여 모든 일정을 마친 청소년들을 격려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라도균 의장, 이은주 행정문화위원장, 김종보 의원, 이미지 의원, 박희연 윤리특별위원장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다. 캠프는 종로에 거주하는 중학생과 업무협약을 맺은 담양군의 중학생, 종로 국제서당의 청년 멘토가 한자리에 모여 멘토-멘티 관계를 공고히 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종로 일대의 한옥과 역사·문화시설을 둘러보고 서당 인문학 교육, 대사관과 기업의 진로 설계, 영어로 진행하는 문화유산 교육 등 종로에서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최광수/기자

청년 멘토들은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멘토링 소통법', '경복궁 탐방과 영어해설 교육' 이수 등 멘토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고, 캠프에서 멘티들과의 유대감 형성 또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라도균 의장은 "민선 8기 역점사업이자 종로만의 특색 사업인 종로 국제서당은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외국어·인문학적 소양·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칭찬하며 "종로구의회는 앞으로도 종로만의 우수한 교육문화를 구축,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해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광수/기자

# 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 '여름휴가는 어촌·바다로 캠페인' 참여

폭염과 장마로 지친 어촌·바다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국·비례) 의원이 최근 '여름휴가는 어촌·바다로'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전담팀(TF)'과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캠페인은 최근 여름휴가 기간을 맞아 폭염과 장마, 태풍 등으로 위축된 어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내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해권 위원장의 지목을 받은 박창호 의원은 30년 가까이 항만 업계에서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박창호 의원은 다음 주자로 인천

박창호 의원은 "우리 어촌이 해외 유명 항만도시와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서 "우리 어촌을 사랑해주시고, 우리 수산물을 애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나라만큼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수산물을 즐길 수 있는 나라는 드물고, 우리 어촌만큼 아름다운 곳을 찾기는 어렵다"며 "현재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우리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중배 의원과 한국노총 인천시지부 김영국 의장을 각각 지목했다. 김중남/기자



인천광역시의회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 편집국장:최재은 | 부회장:박유석 | 임석경 | 청소년책임보도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 등록일 2013-07-12 |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대선 (112)	문화부:대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대선 (113)	부동산부:대선 (117)
	경제부:대선 (114)	오피니언부:대선 (118)
	스포츠부:대선 (115)	지방부:대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기도의회 전자영도의원, 상갈역 철도 유희부지 마을정원 예산2억5천만원 확보

### 농골어린이공원 앞 철도공단 유희 부지, '모두의 정원'으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용인4, 더불어민주당)이 관리 부실로 주민 민원이 제기된 기흥구 상갈역 국가철도공단 유희부지 활용방안 예산 2억 5천 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사업 예산 확보로 상갈동 어린이공원 앞 유희부지는 도심 속 주민 쉼 공간 '모두의 정원'으로 조성된다.

전자영 의원은 "상갈역 1번 출구 농골어린이공원 앞 주변 정비를 요청하는 주민 민원이 지난해부터 제기돼 대책을 모색하던 중 관리 부실 면적이 철도공단 소유 1982㎡ 중 녹지 880㎡ 인 것을 확인했다"며 "지역주민,

용인시 실무부서 간담회를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과 철도 유희부지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갈역 인근 철도부지는 농골어린이공원과 인접해 있으나 관리 구역이 명확하지 않아 나무가 죽고, 상습 흡연과 우범지대로 주민 우려가 컸던 곳이다.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용인시 동부공원관리과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는 '철도 유희부지 활용사업' 공모사업에 녹지공간을 '모두의 정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며 지난 7월 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예산 2억5천 만원이 확보되면서 상갈역 인근 철도 유희부지는 마을 정원으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주변 농골어린이공원과 어울리는 수목을 식재해 주민 쉼터 공간을 마련하고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쉼터, 가로등, 그늘막 등을 설치한다.

전자영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도심 속 정원 조성 사업을 효능감 있게 추진해 유희부지가 정원으로 조성되면 농골어린이공원 역시 주민 쉼 공간으로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이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 어정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4일 어정중학교(용인시 기흥구 동백3동 소재)에서 학부모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정담회에 참석하여, 학부모들과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어정중학교 최은진 학부모회장을 비롯한 많은 학부모들과 학교 및 용인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정하용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없으면 저와 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없으므로, 학생 및 학부모님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의 현안 문제에 대해 오늘 교육청 관계자들이 가능한 현실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조성배 교장은 "냉난방기 노후화로 인해 고장 및 수리가 빈번하여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교실 및 다목적 강당 등에 일반형광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학습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13.9월 개교 후 내용연수(9년)가 경과한 냉난방기 교체 및 노후화된

LED 조명교체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최은진 학부모회장은 "지난 기말고사때 냉방기가 고장나서 학생들이 많이 고생했다"고 말하며,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사업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지만 내년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작업 효율성을 등을 고려하여 LED 조명교체 사업은 내년 여름방학, 냉난방 시설교체 사업은 내년 겨울방학 때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LED 조명 교체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내년 여름방학때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냉난방시설 교체 사업도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와 협의한 후 내용을 추후 학부모회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에 참석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행사는 '더 큰 대한민국으로 함께 갑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기념영상 시청과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염 의장은 경축행사에서 만세삼창에 동참하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호국보훈의 가치와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도의회는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참석

이어 "여전히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선조들의 뜻을 기리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라며 "후손들이 바라는 진정한 보훈의 뜻이 정책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과 최충현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수원7),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더민주, 평택2), 조용호(더민주, 오산2)-서성란(국민의힘, 의왕2)-박재용(더민주, 비례)-서현욱(더민주, 평택3)-정윤경(더민주, 군포1)-이오수(국민의힘, 수원9)-이병길(국민의힘, 남양주7) 의원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광복회 및 보훈단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부천(병)지역위 대학생위원회와 경기도의회 견학 프로그램 참여

## 김동희 의원, "청년들과 더욱 친숙한 의정활동 진행하겠다" 밝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부천(병)지역위 대학생위원회 8명과 경기도의회 견학 프로그램 참여 및 정담회를 가졌다.

김동희 의원은 "도민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부천(병)지역위 대학생위원회를 환영한다"며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리면서 주민의 정치참여가 더욱 확대된 가운데 우리 대학생들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졌다. 오늘 경기도의회 방문이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들과 자주 소통하며 함께 고민해 더 행복하고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부천(병)지역위 대학생위원회의 경기도의회 견학 프로그램은 의정활동 체험을 통한 진로 설정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대학생들은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둘러보고 안건 의결 및 투표 등 일일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를 직접 체험해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김범상/기자



# 2023 경기도 독서포스터 '미쁘다, 우리 책' 제작, 배포

## 경기도민, 출판사, 도서관이 함께 만드는 독서문화콘텐츠, 독서포스터 제작

경기도가 9월 독서의 달을 기념해 독서포스터를 배포한다. 올해로 열세 번째 만드는 경기도 독서 포스터는 도민, 도서관, 출판사가 함께 만드는 독서문화콘텐츠다.

지난 6월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독서포스터 공모전에서 총 467편의 표어가 접수됐으며, 공모 심사회의를 통해 최우수작 1편과 우수작 2편을 선정했다.

최우수작은 백진주씨(안양시)가 독서 자체가 참 아름답고 독서하는 우리는 믿음직하다는 순우리말을 이용한 '미쁘다, 우리 책'이다. 우수작은 권순희(평택시)씨의 '책, 벗', 박근란씨(고양시)의 '같이 읽고 같이 놀고?'가 각각 선정됐다.

포스터 배경은 지현경 작가의 '책冊'(책고래 출판사) 그림책의 표지다. 국내 출판사들의 협조 속에서 수집한 도서 표지 중 내부 심사와 경기도 사서서평단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도는 독서포스터 7,000부를 제작하여 도내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31개 시군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올해 디지털 포스터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누리집 소통마당→일방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박정숙 도서관정책과장은 "독서의 달 포스터를 활용해 독서 흥미를 유발하여 독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 둘째 자녀부터 가능해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생활 안정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의 학령기 자녀(셋째 이후 학생)에게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2.15. 발표)에 따라 다자녀 기준이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완화된 것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의 '다자녀 학생'의 정의를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후의 학생으로 하고, 매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학령기뿐만 아니라 영유아·청

소년(대학생 포함) 등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양육·교육비,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공공시설 이용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안도 마련중"이라며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 및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경기도 소관 조례 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는 9월 중순에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다양한 정책들이 개선될 것"이라며, 경기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이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잼버리 대원 헌신적 지원에 시 직원과 각 기관에 감사편지

“시 공직자와 기업·대학, 유관기관 긴밀한 협조 고맙습니다” 서한문 보내

용인특례시가 14일 감비아와 보츠와나 잼버리 대원 출국을 끝으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활동을 마친 가운데 이상일 시장이 4천여 시 공직자와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시 산하기관, 지역 내 기업과 대학교 등에 일일 서한문을 보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시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지역 내 기업 연수원과 대학교, 종교기관 등 15곳의 속소를 마련해 광역 단위를 제외한 단일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5개국 5000여명의 대원을 받아 냈다.

시 공직자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용인을 찾은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 안전과 잡자리 점검, 식중독균 검사까지 철저히 진행하는 한편 다채로운 체험 행사까지 제공하면서 헌신적으로 지원활동을 펼쳤다.

이 시장은 속소를 제공해준 15개 기업 연구소·대학·종교기관과 경찰·소방, 시의

공공기관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잼버리 대원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과정에서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필요한 모든 일을 세밀하게 챙기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용인특례시가 전국에서 갈채를 받았다. 각 시설과 기관 협조체계도 잘 이뤄져서 용인의 대응 역량이 단연 돋보였다. 고객 속에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각자의 고국으로 돌아간 외국 대원과 다른 시·군으로 복귀한 한국 대원들은 용인에서의 경험을 가슴 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것”이라며 “5천여 청소년들과 용인이 마을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시장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시는 우선 잼버리 대원을 위해 속소를 마련한 명지대학교와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 중앙에담학교, 현대차 마복캠퍼스, 기아 비전스퀘어, 대웅경영개발원, 기아 오산교육센

터, 삼성생명휴먼센터, GS용인엘리시안러닝센터, 코오롱 인재개발원, 신한은행연수원, 새에덴교회, 경기소방학교 등에 서한문을 보냈다.

또 용인동부·서부경찰서와 용인소방서 그리고 용인도시공사·용인문화재단·용인시자원봉사센터·용인시청소년수련원 등 시 산하기관과 대원들을 위해 간식과 물품을 지원한 용인상공회의소, 농업용인시지부, 이마트, 지구촌교회 등에도 감사서한을 발송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10일 명지대학교에서 진행된 공연행사에서 공연장 안내와 안전관리 등 행사 진행에 큰 도움을 주고 대원들을 위해 생수 5500병을 지원했다.

용인문화재단은 대표 콘텐츠인 아임버스커의 K-POP 공연부터 아트러너와 함께하는 만들기 행사까지 대원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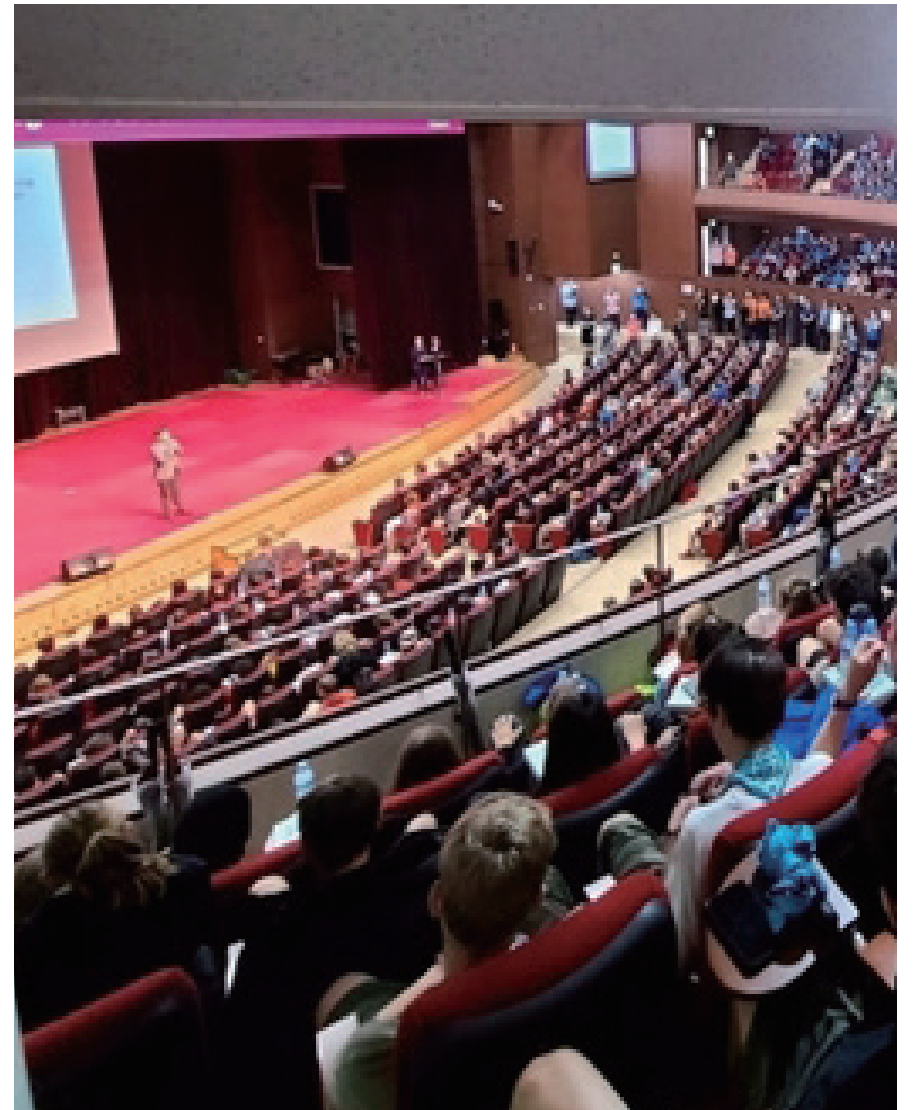
용인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0일 명

지대 공연에 자원봉사자 40여명과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을 지원해 운영에 도움을 줬다.

용인시청소년수련원은 필리핀, 덴마크 등 500여명의 잼버리 대원들이 사계절 별매장 및 수영장 체험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했다.

농협 용인시지부는 샌드위치와 음료 등 5400개를, 지구촌교회는 샌드위치 2000개와 쿠키 1000개를 지원했다. 지역 내 이마트 7개점은 대원들을 위해 열음물 1만1000개를 지원하고, 용인시약사회는 피로회복음료 2000병을 제공했다. 용인상공회의소와 기업인들은 카스텔라 6000개와 음료 4280개, 땅콩버터 100개, 수건 200장을 지원했다. 지역 화장품 제조 업체 퍼플홀릭이 손소독 티슈 6000매를, 식품제조 업체인 SLB코리아가 샌드위치 4000개, (주)태중에프디가 파이와 우유 1500개를 지원했다.

김범상/기자



# 하남시, 매출 1.4조 기업 서희건설 하남유치 성공

허훈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민선 8기 주요현안사업으로 대기업 유치를 선포한 하남시가 그 간 투자유치역사상 최고 매출액 기업인 '서희건설'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남시는 중견급 대형 건설기업인 (주)서희건설이 하남시로 본사를 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주)서희건설은 매출액 1.4조원(2022년 기준), 도급순위 20위(2023년 기준)의 건설기업으로, 종업원수 886명(2023

년 기준)으로 중견급 대형 건설기업이다. 서희건설 그룹은 상장사 (주)서희건설, (주)유성티엔에스를 비롯한 계열기업 총 34개를 포함하여 총 종사원수는 1,100여명에 이른다.

그간 시는 투자유치단 구성, 관련 조례 제정 등 기업 유치를 통해 시의 재정 확충과 좋은 일자리 창출, 나아가 하남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왔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하남시는 투자유치단을 중심으로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과 소통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는 “하남시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당사의 42년 건설 노하우를 접목시킬 경우, 하남 지역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하남시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첫 번째 모델”이라며 “유명 건설기업인 서희건설 본사 이전 결정은 그 동안 자족기능이 부족했던 하남시에 대기업

유치라는 큰 결실을 가져다 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희건설측은 '관내 거주 시민의 고용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과 사회공헌 사업에도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이전 결정을 통해 하남시는 법인소득세 확충을 통한 시의 재정 안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서희건설은 하남시의 우수한 교통인프라와 유리한 입지를 활용해 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하남시는 기업유치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서희건설과 긴밀한 협력 하에, 7월 통과된 기업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 및 행정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별히 일자리경제국장 등 1:1 전담 PM으로 지정하여 빠른 이전과 효율적인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해 11월 2일 세계명품 골프 브랜드 PXG의 골프 장비 생산·판매사인 (주)카네(주)로저나인과 기업인 투자 등 업무협약을 맺고 감일동으로 사옥 및 연구소(23년 6월 5일 착공)를 유치한 바 있다.

김범상/기자

# 성남시 잼버리 끝났어도 지역 찾은 스카우트 대원들 적극 지원

## 성남시 잼버리 끝났어도 지역 찾은 스카우트 대원들 적극 지원

성남시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8.1~12)'에 참여한 156개국 3만6000여 명이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지역을 찾아와 추가 일정을 이어가는 대원들에게 지역탐방, 보건의로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잼버리 대회가 끝난 8월 12일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분당구 울동)에 입소한 나이지리아 스카우트 대원 26명과 인도 스카우트 대원 97명 등 모두 123명이다.

이중 인도 스카우트 대원(97명)과 나이지리아 스카우트 대원 일부(20명)는 각각 8월 14일과 16일까지 해당 숙소에서 머물면서 남산서울타워, 대광사, 신구대식물원, 천림산 봉수지, 판교 크린타워 등을 둘러본 뒤 출국했다.

남은 6명의 나이지리아 스카우트 대원들은 오는 8월 20일까지 봉곡사 망경암, 중원어린이도서관 우주체험관, 남한산성, 중앙공원 등 지역탐방 일정을 이어간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통역사 2명, 문화관

광해설사 2명을 투입하는 등 가용자원을 동원 중이다.

앞선 8월 4일~11일 성남지역에 머물다간 세계스카우트 대원은 영국(200명), 핀란드(118명), 한국(73명), 리히텐슈타인(63명), 스위스(36명), 필리핀(7명), 스페인(4명), 독일(3명), 호주(1명), 오스트리아(1명) 등 10개국, 506명이다.

이번 나이지리아(26명)와 인도(97명) 대원들까지 합치면 모두 12개국, 629명의 세계스카우트 대원들이 성남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체험했다.

시 관계자는 “잼버리 공식 일정은 끝났어도 성남을 찾은 대원들이 지역에 머무르는 동안은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잼버리는 1920년부터 4년마다 개최되는 전 세계적 야영대회다. 새만금 잼버리는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세계잼버리 이후 31년 만에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 개최됐다.

김범상/기자



# 대한민국 최고 책 축제에 스타 작가 총출동...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고양'

김영하, 은희경, 박상영, 박준 작가부터 코미디언 김영철까지

고양특례시가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전국 최대 규모 독서문화축제인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고양'을 개최한다.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고양은 시민, 지역서점, 출판사가 독서 공동체를 만드는 화합의 장이자 독서, 교육,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축제가 될 예정이다. '읽는 사이에-변화하는 나, 성장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펼쳐질 2023년 독서대전은 전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막식, 강연, 북토크, 공연, 체험, 북마켓, 전시, 토론회 등 50여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시민을 기다린다.

특히 올해는 인기 작가가 총출동해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고양시는 독서대전을 준비하면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민이 만나고 싶은 작가를 선정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1위에 등극한 김영하 작가를 초청했다. 김영하 작가의 강연 소식에 많은 독서인들이 환호했다.

더불어 다채다능함의 아이콘인 인기 코미디언 김영철의 강연, 은희경, 박준, 손택수, 백영옥 등의 고양시 작가와의 만남과 박상영 작가-강화길 소설가, 김민섭 작가-김동식 소설가와의 북토크도

열릴 예정이다.

지역 서점과 출판사가 협업한 북마켓과 체험 부스도 주목할 만하다. 행사 기간 동안 출판사와 서점, 지역의 문화기관이 참여하는 150개의 북마켓과 20개의 독서체험 부스가 도서 판매, 전시, 다양한 독서체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어린이 독자를 위한 행사도 많다. 그림책 작가의 1인극 '드라클라와 음악선생님(박연철 작가), 유기견 영남이(유진 작가), 매미가 들려주는 여름의 소리(장현정 작가), 공포의 새우눈 그림책 강통독(미우 작가) 등이 어린이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일산호수공원에서 책과 마라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서마라톤', 책을 읽고 마음껏 그려보는 '독서감상대회',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즐길 수 있는 '호숫가 야외도서관', 반려견과 반려인이 같이 읽고 노는 '잔디밭 책명명', 책 소개 대결 '비블리오 배틀' 같은 이색 체험 행사가 시민의 참여를 기다린다.

시 관계자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책 축제가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한영기/기자

미래를 바꾸는 힘! 독서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고양

읽는 사이에 변화하는 나, 성장하는 우리

일산호수공원 2023. 9. 1 - 9. 3

개막식 · 강연 · 북토크 · 공연 · 북마켓 · 전시 · 체험 · 콘서트

주최: 고양시, 고양문화재단, 고양도서관, 고양시교육지원청, 고양시청소년수련원, 고양시장애인복지관, 고양시노년복지회, 고양시장애인복지회, 고양시장애인복지회, 고양시장애인복지회



### 시흥시, 독립지사 권희·윤병소 선생 기념비 건립...애국정신 기려

시흥시가 지난 15일 장현지구 근린공원 제2호에서 시흥 출신의 권희·윤병소 독립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권희·윤병소 지사의 유가족을 비롯해 '권희·윤병소 독립지사 기념비 건립위원회'와 많은 지역 주민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앞서 시흥시는 3·1운동을 주도해 독립유공자로 국가의 훈장·포상을 받은 관내의 김천복, 윤동욱, 장수산, 권희, 윤병소 독립지사에 대해 '3·1 독립유공자 기념비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해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김천복 지사 기념비(죽음동 생글어린이공원)를 시작으로 2019년 3월 윤동욱 지사 기념비(산현공원)를, 2019년 6월 장수산 지사 기념비(매곡공원)를 단계적으로 건립했다. 이후 장현지구 공원 조성이 끝난 지난 8월 15일 권희·윤병소 지사 기념비를 건립함으로써 독립지사 5명의 기념비 건립 사업을 마무리했다.

시흥 장현리 출신의 권희 지사는 1919년 4월 6일, "4월 7일 군자면 구장터에서 독립만세 시위가 열리니 참가하라"는 비밀통고를 작성하고, 장수산 지사와 함께 각 동리를 돌며 회람 활동을 하다가 사전 발각돼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권 지사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시흥 능곡리에 거주했던 윤병소 지사는 1919년 3월 30일, 수암면 비석거리 만세운동을 선두에서 주도했다. 이후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1919년 5월 27일 옥중에서 순국했다. 공적을 인정받아 1990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기념비 건립으로,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게 돼 기쁘다. 공원에 방문하는 많은 시민이 기념비를 통해 더 가까이에서 독립지사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배상"

'제11차 세계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수원 장안공원 서문광장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 '기억이 역사의 정의다'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10년 전 기림일 행사를 시작할 때 피해 할머니 58분이 생존해 계셨는데, 지금은 9분만 남았다"며 "일본

국내에서는 2017년 12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간에서 진행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정부가 하루빨리 할머니께 사과하고, 역사가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평화나비를 비롯한 시민들 덕분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의 역사가 잊히지 않을 수 있었다"며 "10년 동안 한결같이 할머니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기림일 행사는 수원평화나비와 제11차 8.14 세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추진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수원시가 후원했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은 전 세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기리는 날이다. 2012년 대만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제정했다.

8월 14일은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1924~1997)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증언한 날이다. 김 할머니는 일본 정부 주장을 반박하며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했다

기념으로 시작한 이날 기념식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인권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수원평화나비'의 이주현 상임대표 인사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의 추념사, 시민 문화공연,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선언문 낭독 등으로 이어졌다.

제11차 8.14 세계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일추진위원회는 갈릴리교회, 경기평화교육센터, 매원교회,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여성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평화나비 인권강사단, 청년·청소년NGO안아주세요, (사)수원민주화계승사업회, (사)수원YWCA로 구성됐다.

김병삼/기자

### 부천시, 소새울공원에 '맨발 황톳길' 조성한다

도심지 공원 속누구나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어싱길 등 건강한 산책길 조성

부천시는 소새울공원 리모델링 시 누구나 도심지 내 공원에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맨발 황톳길'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밀집지역 내 위치한 소새울공원은 다양한 연령층이 즐겨찾는 공원으로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령이용자가 많은 곳이다.

시는 다양한 연령층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전세대가 공감하는 공원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소새울공원 내 '맨발 황톳길'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소나무와 편백림 구간을 활용해 약 200m 길이의 황토

포설 어싱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소새울공원 리모델링은 오는 9월 착공해 12월 준공 계획으로, 내년 봄이면 파릇한 새싹과 함께 집 앞 공원에서 '맨발 황톳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황톳길 조성 시 토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시민들에게 건강한 산책로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존 배수로를 활용한 친환경 빗물정원 또한 새롭게 도입해 쾌적하고 즐길 거리가 다양한 공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 안양시, '광복 의미·선열 정신 기억'...8·15 광복 기념음악회 성료

최대호 시장 "아픈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광복 의미 되새기고 나라 발전시켜야"

안양시 '8·15 광복 기념음악회'가 지난 15일 저녁 7시 30분에 만안구 병목안시민공원에서 1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코로나19 확산과 집중호우 재해로 4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광복 기념음악회는 광복 78주년을 맞아 광복의 기쁨과 벅찬 감동을 춤과 노래로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다시 한번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원태우 열사의 역사 다큐멘터리 '이토를 겨냥한 최초의 저격자'가 상영됐으며, 자유를 꿈꾸는 검투사의 모습을 통해 선조들의 고통과 애환, 광복의 기쁨을 표현한 김민정발레단의 발레극 '스파르타쿠스'가 무대에 올랐다.

이어 여성 5인조 퓨전국악그룹 비단이 영웅의 제국, 아름다운 나라 등의 노래를, 남성 4인조 팼페라그룹 에클레시아가 광복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뮤지컬 '영웅'의 노래를 선사해 시민들의 갈채를 받았다.

양하영밴드, 가수 이수영 등도 광복의 밤을 노래하고 무더위를 잊게 하는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최대호 안양시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음악회가 열린 병목안시민공원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철로 개설을 위해 자갈을 채취해 인적 피해는 물론 산림 황폐화를 겪은 역사적 아픔이 있는 곳"이라고 소개하며,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지사들과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해 나라를 발전시켜야"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Everywhere Green Life, H<sub>2</sub>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Feel·必

#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 전남도, 78주년 광복절 경축식

전남도는 15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열어 선열의 애국정신을 계승해 전남 행복시대를 활짝 열어가길 다짐했다.

경축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과 애국지사 유족 및 광복회원, 기관·단체장 등 900여 명이 참석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다시 찾은 대한민국, 다시 빛날 우리 나라’를 주제로 열린 경축식은 독립유공자 포상을 시작으로, 광복회 기념사, 경축사, 비슬무용단과 목포시립합창단 기념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으로 진행됐다.

독립유공자 포상에선 고(故) 남삼홍님의 자녀 남점지님이 대통령 표창을 전수받고, 광복회 박동환, 윤준식, 이재현님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기념공연은 광복의 기쁨과 새 희망을 표현한 창작무용과 아리랑 합창이 이어져 그날의 감동과 환희를 고스란히 느끼게 했다.

또한 도청 윤선도홀(1층 로비)에서

김영록 지사, “다시 찾은 대한민국, 세계 속 우뚝 서도록 앞장”



는 직원들이 핸드프린팅으로 만든 대형 태극기를 전시하고, 자유와 독립을 향한 민족의 여정을 담은 ‘독립전쟁사’ 사진전을 열어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영록 지사는 “선열들이 광복을 통해 무엇이든 함께 한다면 해낼 수 있다는 대동정신과 자신감을 위대한 유산으로 남겼다”며 “우주항공, 이차전지, 데이터와 바이오 등 최첨단 전략산업

을 중점 육성하는 등 78년 전 선열들의 희생으로 다시 찾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이 세계 속에 우뚝 서도록 전남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최근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강제동원 표현을 삭제하는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진실한 사죄와 반성으로 독선과 아집의 역사에서 벗어나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올해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 명예수당’을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을 확대했으며,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남도의별 역사박물관’ 개관(2025년) 등 의향 전남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미 서훈 독립유공자 128명을 발굴해 증거자료가 확보된 80명에 대해 서훈을 신청한 결과 18명이 확정됐다. 앞으로도 남은 유공자의 조속한 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박종배/기자

## 함평군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Cool~하게 여름나기’로 이웃사랑 실천

취약계층 14가구 방문해 안부 확인 및 쿨매트·쿨베개 전달

전남 함평군은 15일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폭염에 취약한 관내 저소득층 14가구를 대상으로 ‘Cool~하게 여름나기 쿨매트·쿨베개 지원 사업’을 지난 14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Cool~하게 여름나기’ 사업은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모금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안부 확인 및 물품 전달 등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폭염 대비 생활수칙, 여름철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시원한 여

름나기를 위한 쿨매트·쿨베개 세트를 전달했다.

정천수 민간위원장은 “올 여름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물품을 지원했다”며 “지역 내 돌봄 이웃을 위한 사랑과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화자 나산면장은 “최근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지역의 취약계층 어르신들 직접 가정 방문해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진/기자



## 남원시, 한가위 명절선물전 참가 남원 농특산물 홍보 판매

8월 1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남원전시관 운영



남원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2023 한가위 명절선물전』에 참가하여 대형유통업체 구매담당자, 도매물류 벤더들,

개인 소비자들에게 남원시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남원시 농·특산물 홍보판매관은 코엑스 3층 C홀 부스 내 남원전시관을

설치하여 1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관내 5개 생산업체가 참여하여 지역 특산물인 김부각, 누룽지, 참기름 등 유지류 선물세트와 추석에 꼭 필요한 청주, 탁주 등 전통주 선물세트를 홍보·판매한다.

2023 한가위 명절선물전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직접 만나 판매와 계약이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으며, 특히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나누어 줄 선물세트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등 지역 특산물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또한, 남원시는 추석을 맞이하여 서울 시청 광장과 서초구청, 구로구청 등 자매결연도시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도 참가하여 남원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더불어 온라인 쇼핑몰인 남원사이버장터와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전북생생장터특히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쇼핑몰에서 남원브랜드관 개설 추척맞이 특별 기획전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할인쿠폰 지원 등을 통해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다양한 행사 참가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남원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산물 판매 촉진에 통해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 나주시, 초등학생 100명 동신대 영어캠프 수료식 개최

7월 31일부터 2주간 동신대 국제교육원서 ‘영어 자신감 쑥쑥’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교에서 영어 자신감을 키운 나주시 초등학교 2학년 100명의 학생들이 2주 동안의 캠프 생활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주말(12일) 동신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여름방학 영어 캠프 수료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 250여명이 참여한 이날 수료식에서는 2주간 캠프 생활을 담은 영상 상영, 우수학생 시상, 축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영어 캠프는 관내 초등학생 5~6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이뤄졌다.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와 함께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 기초 외국어 과정과 더불어 영어 신문·방송·뉴스 제작 등 과목을 다채롭게 구성해 흥미와 동기를 부여

했다. 특히 학습 능률을 높이고자 사전 시험·면접을 통해 수준별 반을 편성하고 모든 수업을 원어민 교사와 영어로 진행하며 영어 자신감을 키웠다.

나주시는 학생 1인당 교육비 130만원 중 91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 학생은 전액을 각각 지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수료식에서 마주한 학생들의 힘찬 환호와 자신감 있는 표정에서 영어 캠프의 성공적인 성과를 보고 느낄 수 있었다”며 “나주의 학생들이 미래 글로벌 인재로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료를 축하했다.

지난 2012년 시작한 동신대 국제교육원 영어캠프는 올해 여름까지 총 2719명의 학생이 과정을 수료했다.

김영민/기자



## 더운 여름, 순천시가 준비한 커피 한잔 어때요?...탄소중립 이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 참여 시 커피쿠폰 증정

순천시가 에너지의 날을 기념해 전 시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활성화를 유도하는 ‘탄소중립 초성퀴즈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2월부터 진행되어 온 기후변화대응 이벤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로 ‘기후위기는 현실! 탄소중립은 필연!’이라는 인식 제고와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에 걸맞은 시민주도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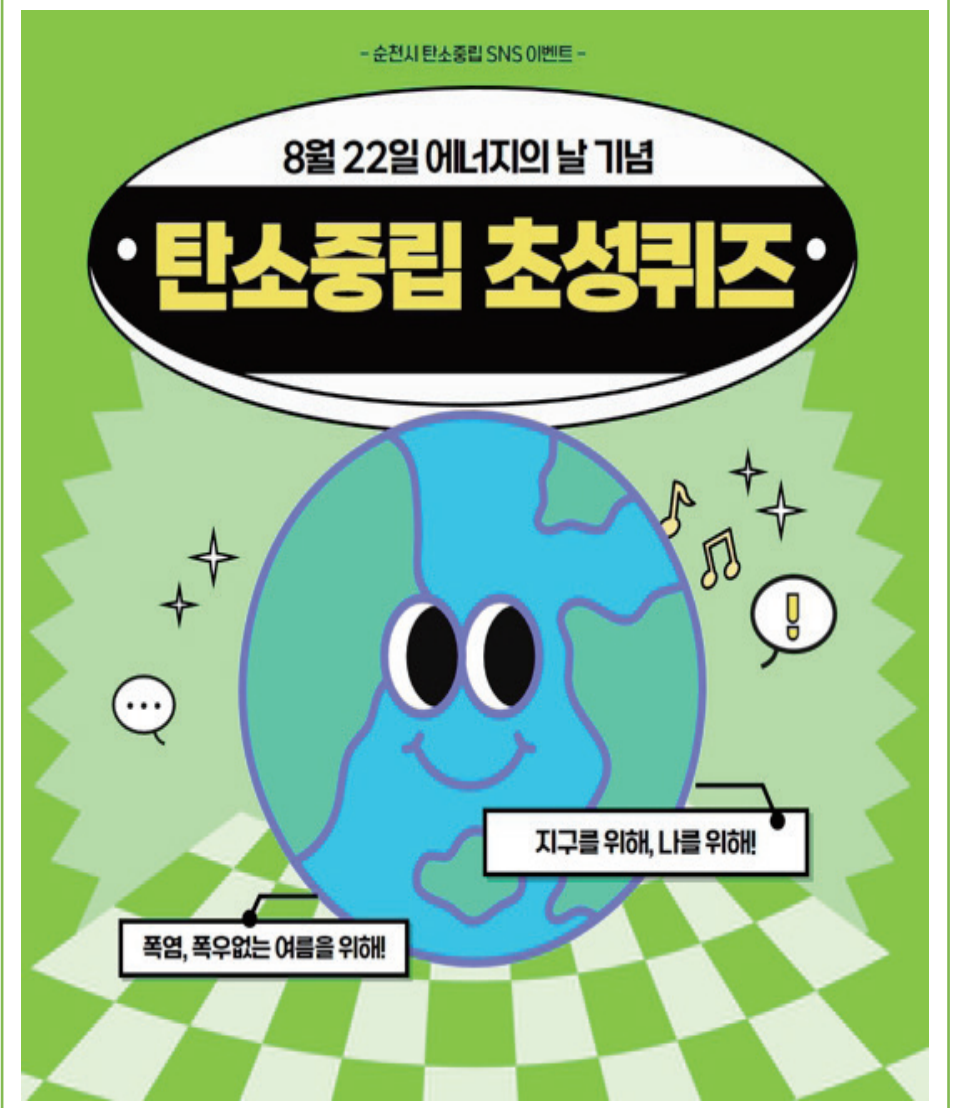
8월 22일 제20회 에너지의 날을 기념하여 21시부터 5분간 진행되는 전국적인 소동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초성퀴

즈 맞추기 이벤트’를 준비했다.

14일부터 순천시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해시태그 #순천시에너지의날을 포함한 댓글을 달고, 초성퀴즈 정답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여름 폭염·폭우 등을 겪으며 기후위기를 전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순천시민 모두가 기후위기대응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동참하기 바라며, SNS이벤트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 완도해경, 해양오염방제 소식지 발간 “국민과 소통海”

해양 환경과 해양 오염방제 업무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하다

완도해양경찰서는 국민들에게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업무를 알리고, 민간 방제세력과의 협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소식지 일명 ‘반·하·다’를 발간하여 각 파출장소, 여객선터미널 및 민간해양자율방제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 해양오염방제 소식지 ‘반하다’는 ‘반갑게 마주잡은 두손, 하나되어, 다함께 깨끗한 바다를’의 줄임말로, 청청바다 완도를 지켜나가기 위해 21년부터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주관으로 제작되어 이번에 제4호 소

식지를 발간했다. 이번 소식지에는 금일 해양자율방제대 및 완도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소개, 예인선 침몰사고 및 기름유출 단속사례, 방제 기자재 종류, 블루카본 보호의 중요성 등 각종 해양환경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완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소식지를 통해 해양오염 방제업무 대국민 홍보 및 해양환경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과 함께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양영율/기자





# 전북도, 재중 도민 자녀, 항일투쟁의 현장서 8·15 의미 되새겨

### 도 중국사무소, 재중 전북도민 자녀 대상 역사탐방 실시

전라북도중국사무소는 8.15 광복절(78주년을 맞아 재중 전북도민 자녀를 대상으로 역사, 국가 그리고 고향에 대하여 고민하고 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8월 14일부터 3일간 항저우, 자싱, 상하이에 새겨진 우리나라의 항일투쟁 역사유적 탐방을 진행했다.

중국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제한이 심했던 지난해에도 재중 도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얼빈 안중근의사기념관 등 중국 동북지역 역사탐방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의 높은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재중 도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이어 제2회 한국 역사탐방을 추진하게 됐다.

올해 역사탐방은 상하이와 그 인근 지역의 항일투쟁 유적 방문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상하이는 중국의 경제, 금융의 중심지인 한편 우리 독립투쟁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있었고 많은 운동가가 독립투쟁을 위해 머물렀던 곳으로 항일투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상하이에서 학생들은 윤봉길의사기념관을 방문하여 참배했다. 기념관 매원(梅園)은 1932년 4월 상하이 홍커우공원(현재 루쉰공원)에서 열린 일왕 생일축하 기념식 및 일본군 상하이 점령 경축식 행사에 폭탄을 던져 일본군 수뇌부를 폭사시킨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기념하여 건립된 곳으로 의사의 생애사적이 전시돼 있다.

또한, 윤의사의 의거 직후 김구 선생이 일제 탄압을 피해 상하이를 떠나 저장성 자싱 지역에서 피신하여 피난처로 이용했던 곳에 만들어진 김구선생기념관과 선생의 산책길, 독립운동가들의 항일투쟁 활동과 기록물을 전시한 항저우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등 역사유적을 방문하여 제국주의하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 그리고 대한민국 광복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이번 역사탐방을 준비한 정순택 전라북도 중국사무소장은 "재중 전북도민 자녀

들이 항일투쟁에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역사



# 신안군, 홍콩 국제 식품박람회서 1004굴 마케팅

### 홍콩 FOOD EXPO 참가를 통해 해외 수출길 확보 총력

신안군은 다가오는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1004굴 수출을 위해 아시아 최대 홍콩 국제식품박람회(HOFEX)에 참가해 해외 마케팅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홍콩 국제식품박람회는 전시, 행사, 구매력이 보장된 세계 50여 개국의 전문 바이어 상담회 등으로 진행되는 세계적인 식품박람회로 동서양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명실상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이다.

신안군의 개체굴은 해양수산부 10대 수출 품목으로 지정되어 수출을 통한 고수익이 보장된 양식품종으로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110억 원을 확보하여 양식시설 규모와 사업을 추진 중이며, 양식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현재 6명의 임대사업자와 공동으로 양식장을 관리 운영중에 있어, 앞으로 1004굴의 안정적인 수출망 확보를 위해 홍콩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하게 됐다.

이번 참가를 통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1004굴의 해외 수출길 확보와 더불어 개체굴 중주국인 유럽산보다 깔끔한 맛과 풍미 등 차별성을 강조하여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추진해온 1004굴 프로젝트의 결실을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서양은 수산물을 생으로 먹지 않는 식문화를 갖고 있으나 굴만은 유일하

게 생으로 즐겨 먹고 있으며, 굴 양식 역사 또한 300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굴 양식이 더욱더 발전한 프랑스, 미국에서는 개체굴이라는 개량품종을 개발하면서 양식 방법 또한, 자연산 굴처럼 외부 환경에 노출함으로써 모양(물방울 형태)과 크기, 맛과 향이 좋은 굴을 생산하여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으며, 나라마다 선호하는 크기와 무게가 달라 등급화를 제도화하여 부가 가치를 높이고 있다.

신안군 또한 조수간만의 차가 큰 해역적 특성이 있어, 자연 노출로 생산된 1004굴은 유통기간이 길고, 모양과 맛, 풍미가 좋아 유명 백화점, 호텔 및 오이스터바에서 호평받고 있으며, 상품 고등급화 및 부가 가치 향상을 위해 양식시설 규격화(밀식방지)와 출하 등급화를 관련 조례에 담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양식책임관리회의 인증제도인 ASC인증 또한 추진 중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홍콩 국제식품박람회에 세계 1,10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1004굴 홍보관과 시식코너를 운영하여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군 청정갯벌과 그 광활한 갯벌에서 생산된 1004굴의 맛과 풍미, 우수성, 특별한 매력을 대중에게 공략하고 현장에서 세계 전문 바이어들을 직접 면담한 후 후속 연락을 통해 자료제공 및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 진도군,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문조사...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함께 운영

진도군이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군은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는 마을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확인하는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디지털조사는 최근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작년보다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을 통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방문조사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북지취약계층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을 포함한 세대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 신고를 위해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구성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

지원 등 통합서비스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2023. 7.17. - 2023. 11.10. 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실조사 홈페이지(www.jind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023. 7.17. - 10.31.)

중점조사 대상 세대

2023. 7.24. - 8.20. 까지 방문조사 대상 세대(북지취약계층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을 포함한 세대입니다.

※ 방문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신 세대(사망의심자, 장기 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은 방문 조사 대상입니다.

※ 신청 기간: 2023. 7.17. - 10.31.

※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봉사과 방문 신청

※ 문의: 061-770-1234

# 화순군, 주요 도시계획도로 포장개량으로 안전한 도심지 환경 조성

###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023 고양 요넥스 국제 챌린지 배드민턴 대회' 고양체육관에서 열린다



화순군은 올해 17억 5천만 원의 군비와 국비를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포장개량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는 지하 매설물 공사 등으로 인해 도로가 침하되거나, 소성변형, 거북 등 균열, 파손 등으로 노면 상태가 불량한 화순읍 산이 고운 아파트 옆 도로와 춘양면 도시계획도로 등 6개 구간 2.3km에 대해 포장 개량을 완료했다.

하반기에도 5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주거밀집 지역인 ▲화순 부영2차아파트~미룡타운, 유창 3차~신 현대어린이집(1.08km), ▲서라 3차 아파트 진입도로(L=0.12km) 등 주요 도로 2개 노선

1.2km를 추진 예정으로 화순군 도심지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도로의 기능이 회복되어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주요 도시계획도로를 적기에 정비하여 군민이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경호/기자



# 구례군-서울시와 함께하는 역사와 문화 배움 여행

전남 구례군은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간 구례군-서울시 청소년 역사 문화 교류 프로그램 C.P.A(Culture, Politics, Art) 캠프에 참여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례군-서울시 역사 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구례군과 서울특별시가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양 지역의 청소년들이 서로의 지역을 방문해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 대한 안목을 키우게 된다.

이번 교류에서는 서울시의 초청을 받은 구례군 청소년 20여 명이 서울시의 정치, 예술, 교육, 역사 등을 체험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일에는 구례군이 서울시 청소년들을 초청해 3박 4일 일정으로 '2023 자연으로 가는 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서울시 청소년들은 섬진강 래프팅, 지리산 스카이런, 캠핑 등의 활동을 했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능력을 온전히 펼쳐 보이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조금 더 넓게 세상을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구례의 청소년들이 더욱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품고 도전과 열정으로 가득 찬 삶을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 강진군, 강진품애(愛) 일자리 장려금 신청하세요

### 강진 산업단지 근속 1년 이상 청년, 최대 100만 원 지급



강진군은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해 장기간 근속을 유도하고, 기업과 청년이 상생하는 관내 산업단지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강진품애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관내 산업단지(성전산단, 칠량-마량 농공단지)에 입사해, 1년 이상 근속 중인(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강진에 주소를 둔 청년이다.

지원은 1인당 최대 100만 원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을 50만 원씩 2회 분할 지급한다. 1차는 1년 이상 근속 시, 2차는 1년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한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면 구비서류를 갖

춘 후 강진군청 인구정책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모집 기간은 12월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추윤호/기자





# 경북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사회적 농업 인식 제고, 사회적 농장 발굴·지원

농촌지역 공동체 가치 확대와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업 확산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설명회를 통해 공유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농촌이 사회적 약자 포용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도록 사회적 농업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히

경북도는 지난 16일,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도, 사회적 농장 관계자, 사회적 농업 실천 희망농가, 시군 담당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북 사회적 농업 설명회'를 개최해,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했다.

경북 사회적 농업 거점 농장인 경산 힐링공유팜(대표 박형근)의 주관으로 개최된 설명회는 관련 전문가, 사회적 농업 우수농장 등을 초청해 ▲사회적 농업의 정책 방향 ▲개념 ▲우수 운영사례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도에서 2023년 사회적 농업 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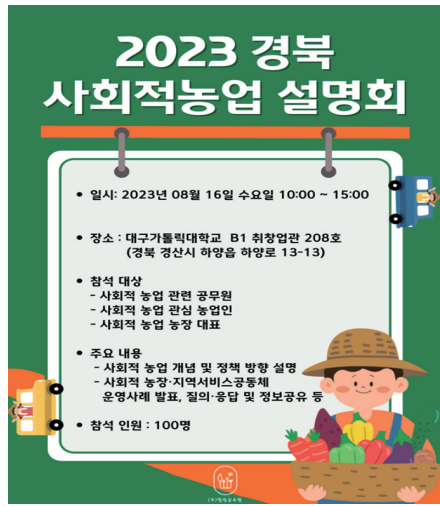
화 지원사업 주요 내용을 비롯한 사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조문수 대구대 명예교수(아그로웰니스 회장)가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당면 과제 등을 발표했으며, 구미 '한우리글로벌협동조합'의 마을주민 및 고령자 등과 함께하는 지역 서비스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과 경산 '바람햇살농장'의 발달장애인 대상 영농재활 및 어르신 치매예방 프로그램 소개 등 사회적 농업의 우수 실천 사례도 공유했다.

도는 이번 설명회로 도내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농업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을 적극 발굴 지원해 경북의 사회적 농업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해 사회적농업 실천조직인 '사회적 농장'과 '지역 서비스공동체'에 사회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개선비 등을 5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경북도에서는 2018년 1개소를 시작으로 '20년 1개소, '21년 3개소, '22년 4개소, '23년 2개소 총 11개소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경산 힐링공유팜을 경북 내 사회적 농장과 지역 서비스공동체를 연결하는 중심기관인 거점 농장으로 지정해 경북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공동체 가치를 활용한 사회적 농업이 농



촌 고령화 및 인구 과소화에 대응하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유된 우수사례와 내용들을 바탕으로 농촌이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농업을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예천군 수해 지역 돕는 성금·물품, 온정의 손길 계속

틀립인터내셔널 대표 정영호 2000만원 등 수재민 일상회복과 복구에 힘 실어 김학동 예천군수, "힘든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는 만큼 피해 주민들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쓰고 항구 복구에도 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히

예천군은 지난달 수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이후 지역 안팎에서 이웃돕기 성금과 구호물품 기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천 제2농공단지 입주기업인 틀립 인터내셔널(대표 정영호)에서 2,000만원을 신속한 피해 회복에 써달라며 전달한 데 이어,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서울강남) 1,500만원, 신탁북부평의회 1,285만원, 이찬원팬클럽찬토버스에서 성금과 물품 1,000만원, 예천군의사회 1000만원, (주)홍창 M&T(대표 장지식) 1,000만원, 대구교통공사 참사랑봉사단(단장 최규필) 1,000만원을 기탁했으며, 대창교 26회 동기 일동 690만원,

한아에스에스 예천영업소(소장 윤봉식) 500만원, 경북청년단소속 울릉청년단 500만원, (합)경도항공고속관광 김중기 대표 200만원 등 성금 전달과 물품 기부가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과 피해 복구에 큰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수해로 시름에 잠긴 군민들에게 위로와 함께 전해주시는 성금과 물품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는 만큼 피해 주민들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쓰고 항구 복구에도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학생·시민과 함께하는 "맹꽁이야~ 놀자!!"

9월 9일(토), 달성습지 일원에서 제9회 생명사랑 환경축제 개최 생태 릴레이 투어, 생물다양성 탐사, 생태체험 부스 등

대구광역시 지역의 우수 생태자원인 달성습지의 가치를 알리고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생명사랑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제9회 생명사랑 환경축제 "맹꽁이야~ 놀자!!"',를 9월 9일(토) 달성습지 일원에서 개최한다.

올해 9회째를 맞는 생명사랑 환경축제는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사)대구환경교육센터가 주관하며 대구시교육청이 후원하는 생태축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

연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달성습지 생태 릴레이 투어, 생물다양성 탐사, 생태체험 부스 등 어린이와 학생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올해는 작년과 달리 생물다양성 탐사 프로그램을 추가 진행함으로써 평소 생물종 탐사에 대해 관심있는 시민들에게 생태전문가들과 함께 달성습지의

생물다양성을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는 탄소중립 실천 및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ZERO', 'NO 플라스틱', '탄소중립' 환경축제 운영으로 참가자들에게 플라스틱 생수를 지급하지 않고 텀블러 지참시 얼음과 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제공되고, 사전 예약은 대구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www.deec.or.kr) : 알림판-공지사항) 또는 웹포스터(QR코드)를 통해 8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최근 기후위기로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과

생물들을 함께 공부하고 체험하고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봉화군, 드론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잡는다

돈사지붕, 산야지 등 방역차량 진입할 수 없는 곳 공중방역...방역사각지역 해소

봉화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역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드론운영팀의 지원을 받아 지난 14일부터 관내 양돈농장 13개소를 대상으로 ASF 유입 차단 드론방역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드론방

역은 지난해 12월 석포면 석포리의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최초 발생된 이래 최근까지도 춘양·몰야·봉성·명호면에서 21차례에 걸쳐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군에서 방역지원본부에 요청해 이뤄지게 됐다.

드론을 이용한 ASF 방역은 돈사 지붕이나 산야 등 방역차량의 접근이 어렵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공중에서

효과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어 가축방역 활동의 신기술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역차량이나 소독기를 이용해 축사 내외부, 농장 진출입로 등을 2차원적으로 소독했다면,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역은 3차원적 입체소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방역의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승훈 농정축산과장은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인 드론을 통해 방역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돈사 지붕이나 산과 인접한 경사지 울타리 부근 등 방역 취약점까지 소독작업을 꼼꼼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에 적극 지원을 해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드론운영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의성군, 디지털 혁신전략 수립계획 용역 착수

김주수 의성군수, "이번 용역은 군 디지털 산업 발전의 새로운 발걸음, 각종 분야 디지털화로 군민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의성군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한 디지털 행정 도약을 위해 지난 14일, '디지털 혁신전략 수립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지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디지털 혁신전략 수립계획'은 의성군의 8대 균형분야(항공, 신성장산업, 보건복지, 지역재생, 행정안전, 지역경제, 미래농업, 문화관광)에 대해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을 접목할 수 있도록 균형 전반 분야의 디지털화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으로, 의성군 디지털 대전환의 발판을 마련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현재 의성군은 ▲노지스마트 농업 ▲축산분야ICT융복합 확산사업 ▲세포배양산업 지원센터 거점의 미래 푸드테크 산업 발굴 ▲홀몸어르신 시로봇 보급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

을 진행중이며, 이번 용역을 통해 기존 사업을 고도화하고 신규 디지털 전환 분야를 발굴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용역은 의성군 디지털 산업 발전의 새로운 발걸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분야의 디지털화를 통해 군민들이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부산시, 「2023 도시혁신 글로벌 포럼, 부산」 개최

도시혁신 정책 총합, 전문가·연구기관·기업·대학이 함께 시 도시발전 전략 모색  
기조연설, 도시 관련 분야 세션, 학회별 세션 등 통해 90여 개 주제발표 진행  
2030부산세계박람회 포럼 참석자 일동 유치지지 공동선언과 '엑스포의 밤' 행사  
박형준 부산시장, "이번 포럼을 통해 부산 발전전략과 대한민국 균형발전 논의가 이뤄져, 논의된 의견이 구체화 되도록 시는 지속적 관심과 지원하겠다"고 밝히

부산시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3 도시혁신 글로벌 포럼, 부산」을 한국경영학회와 공동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부산시 도시혁신 정책을 총합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부산시, 학회 전문가, 연구기관, 기업, 대학이 함께 부산시 도시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 개막식과 기조연설, 도시 관련 분야 세션, 학회별 세션 등을 통해 90여 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주요 행사로, 포럼 첫날인 8월 16일 ▲수영강 일원(센텀시티)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방향 논의 세미나 ▲부티엑스(BuTX) 수소열차 도입 관련 세미나 ▲미래도시혁신포럼 정책 세미나 등 다양한 정책 세미나와 분야별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수영강 일원(센텀시티)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방향 논의 세미나'는 센텀시티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심 재구조화 및 발전방안 모색 등에 대해 주제 발표/패널토론이 진행되며, '부티엑스(BuTX) 수소열차 도

입 관련 세미나'에서는 수소열차의 원리, 부산시 수소산업 현황/육성 계획에 대해 듣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질의 및 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미래도시혁신포럼 정책 세미나'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첨단 교통, 15분 도시, 그린 스마트, 국제화, 창업 혁신도시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며 부산의 미래 혁신 방향을 논의한다.

그 외,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 글로벌 신산업 혁신생태계 부산'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가 첨단제조, 국제금융, 복합물류, 반도체사업, 정보통신 기술(ICT), 마이스 산업 등 부산의 미래 신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발표하는 세션이 진행된다. 김병준 전국 경제인 연합회 회장 대행이 지역 혁신 생태계를 위한 산학정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원숙연 공공기관운영위 위원, 김용준 성균관대 교수가 함께 지역혁신생태계 방향을 논의해본다.

오늘 오전 10시, '남해안권 종합 발전을 위한 정책과 실행전략'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된다.

부산연구원(BDI), 국토연, 사·도연구원, 대학 교수가 종합 발전 추진전략, 관련 제도개선방안, 지자체별(부산권, 경남권, 전남권) 발전 구상과 추진과제 등을 함께 논의한다.

이어서, 포럼 개막식이 같은 날 오후 2시 박형준 부산시장,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한 학회, 대학, 기업,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며, 개막식은 김재구 한국경영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의 환영사,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이철우 경북도 지사의 축사로 시작된다.

이후 ▲정부경영대상, 최우량기업대상 시상식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지 공동선언식 ▲장대한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조엘 포돌니(Joel Podolny) 애플 대학 전(前) 총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지 공동선언에는 한국경영학회를 포함한 37개 전국 학회장 등 포럼 참석자 일동이 전원 참여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



치 공감대 조성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 저녁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는 '엑스포의 밤' 행사가 개최된다.

이를 통해 한국경영학회를 포함한 37개 학회, 대학, 기업 등 국내외 전문가 등 포럼 참석한 600여 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부산산업과학혁신회의 주제로 '도시혁신 신성장동력 연구개발(R&D) 전략 세미나'와 신산업혁신에 대한 '케이(K)-이노베이션 서밋 1, 2'이 개최되며, 이후 폐회식을 끝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된다.

'도시혁신 신성장동력 연구개발(R&D) 전략 세미나'에서는 부산의 과학기술 인재구조 진단, 전력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전략 및 스마트 항만물류 연구개발(R&D) 전략과 추진 방향을 모색한다.

'케이(K)-이노베이션 서밋 1, 2'에는 유수의 기관, 기업 등이 참석해 신산업혁신

금융, 신산업개발 및 정책 제도와 관련한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을 발표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포럼은 도시, 지역 산업, 혁신 성장 등 도시의 미래 발전에 대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수준 높은 식견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다"라

며, "이번 포럼을 통해 부산 발전전략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기대하며,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 남해군 독일마을맥주축제, 대표기념품을 소개합니다

## 수제맥주, 블록굿즈, 캔들세트 등 6점 선정

남해군이 독일마을맥주축제를 대표하는 기념품 6점을 공모전을 통해 최종 선정했다.

독일마을 맥주축제 개최 이래 최초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는 '완벽한 인생'이 제작한 수제맥주 '남해유자에일'이 차지했다.

남해유자에일은 맥주축제의 시그니처적 상징성과 대중성을 담았고, 남해의 특산물인 유자향을 더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완벽한 인생의 다른 수제맥주 '광부의 노래'도 지난 2020년 제 23회 경남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우수는 (주)디엔에이피플의 블록굿즈와 남해유자아플리에의 맥주컵 캔들 세트가 선정되었다. 블록 굿즈는 축제와 블록이라는 조합이 기념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캔들 세트는 맥주컵 모양의 2종 세트로 은은한 남해유자향을 담아 젊은 여성층의 취향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려로 선정된 모두의 굿즈 마그넷 2

종은 남해독일마을과 맥주, 그리고 맥주축제의 하이라이트 행사인 퍼레이드 마차를 표현해 맥주축제의 특징을 나타냈다. '독일집'의 인형 도기리는 독일 꼬마병정을 상징한 목각인형이다. 이미 매니아층 사이에서 꽤 유명하고, 머리와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여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오로로의 맥주잔은 오로라빛을 내뿜는 향균 홀로그램 코팅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남해군 독일마을맥주축제를 표현한 자체미를 잔과 포장디자인에 넣었다.

이번 공모전 작품 접수 기간은 5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였다. 남해군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장식품·캔들·빙·컵·티셔츠·모자 등 다양한 종류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지난 11일 남해유배문학관에서 심사가 열렸다.

남해군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수상하지 못한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윤태용/기자



# 한울6호기 제13차 계획예방정비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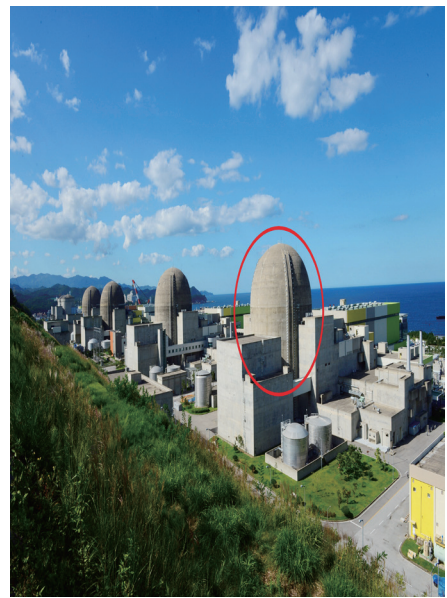
## 약 54일간의 일정으로 연료교체 및 예방점검 수행 예정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는 "한울6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가 지난 16일 오전 10시, 발전을 정지하고 약 54일간의 일정으로 제13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한울6호기는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 연료교체, 발전설비 점검 등의 작업을 수행해 원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원자력 안전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윤근수/기자



# 영주시, 토양보존 환경정화활동 캠페인 실시

## 한국농촌지도자 영주시연합회, 농약빈병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 실시해

한국농촌지도자영주시연합회는 16일 농약빈병 수거 활동 등 농촌 토양 보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단산포도작목반 사무실 전정에서 읍면에서 1차 수거한 농약 빈병을 제조, 살균, 살충, 그 밖의 병류를 분리했다. 연합회는 수거한 빈병을 전용 그물망에 담아 청결하게 관리했다.

이번 행사는 농촌지도자영주시연합회 임원과 읍면회장들이 참석해 심각한 농촌 환경 문제에 공감하고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들녘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기성세대의 사명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서석현 회장은 "농약빈병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된 농약 빈병들이 많다"며 "빈병수거 환경 정화활동에 참여해 준 임원과 읍면회장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농약빈병 수거전용 그물망을 모든 회원에게 지속적으로 보급해 토양보존을 위한 농촌환경 정화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경북도-엠브레어, 두 번째 MOU로 항공산업발전 협력 박차

## 대학 연계 항공교육훈련 강의 및 연수 등 교육서비스 지원

## 9월 항공방위물류박람회 참가, 도내 연락사무소 설립 등 협약

### 이철우 도지사, "도는 대구경북공항 개항과 공항신도시 조성 계기로 경북 항공산업 문을 두드리고 있는 세계적 항공물류 대기업의 도내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



경북도와 세계 최대 중 소형 항공기 (Reginal Jet) 제작사인 엠브레어 (Embraer)사는 지난 16일, 경북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두 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이철우 도지사와 아리안 메이어 (ARJAN MEIJER)엠브레어 민항기부문 대표이사(President&CEO Embraer Commercial Aviation)가 참석, 항공산업 활성화로 상호협력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브라질에 본사를 둔 엠브레어는 보잉, 에어버스에 이은 세계 3위의 항공기 제작사다.

지난 5월 15일 첫 번째 MOU를 포함경주공항에서 체결하고 엠브레어의 주력항

공기인 E190-E2가 울릉도 선회비행에 성공함으로써 경북도와 엠브레어 사이에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의 첫 단추를 채웠다.

이번 업무협약은 첫 번째 MOU를 기반으로 하되 협력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담았다는 점에서 경북도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엠브레어는 경상북도의 항공산업 관련 홍보활동 기여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박람회에 참여한다. ▲엠브레어는 경상북도와 함께 컨설팅 자문 제공을 통해 항공산업 지식 및 모범사례 공유를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경북소재 교육기관 내에서 세미나를 주최해 학생들에

게 항공 관련 강의를 제공하고, 경북소재 항공부품 업체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한다. ▲경북도는 도내 항공산업의 인프라 설립, 엠브레어 항공기의 국내 운항 개시 및 항공정비활동의 여건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경북도와 엠브레어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엠브레어 항공기가 국내 진출 시 도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경북도의 전반적인 항공산업 생태계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경북도와 엠브레어는 도내 교육기관 내에서 항공관련 학생들에게 세미나를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지식공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엠브레어는 차세대 항공인재 육성을 위해 업계 모범사례 공유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향후 경북도는 대구경북공항 배후도시에 항공MRO 관련 학과를 둔 대학과 연계한 '항공산업 공동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캠퍼스에서는 도.(시군).대학 및 주요 항공기업이 연계해 MRO 공동실습장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글로벌 항공 기업이 채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가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인 엠브레어와 신뢰를 바탕으로 두 번째 MOU를 맺었다. 이로써 경북은 항공기 제조, 항공소재부품 및 MRO 산업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경북도는 대구경북공항 개항과 공항신도시 조성을 계기로 경북 항공산업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세계적인 항공물류 대기업을 도내에 유치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엠브레어뿐만 아니라 항공기 운항사, 항공MRO사, 항공물류사 및 관련 교육,연구기관 등의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오는 9월 6~8일, 3일간 구미교(Gumico)에서 개최되는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는 항공기업 유치를 위한 네트워킹의 장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60여개의 기업이 참가신청을 완료했고, 주요 참여기업은 엠브레어, ATR,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한국공항공사(SKT, 한화 등), UPS 코리아, 페덱스코리아, 알리바바, 진에어, 중국남방항공, 도레이첨단소재 등이다. 기업 전시관뿐만 아니라 수출상담회, 항공방위물류 세미나, 진로탐색 콘서트,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윤근수/기자

# 박근혜 前대통령, 박정희대통령 생가 방문

## 육영수 여사 서거 49주기 맞아 아버지 발자취 회고

8월 15일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박근혜 前대통령이 박정희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엔 김창호 구미시장, 안주찬 구미시의회의장, 구자근 국회의원 배우자, 도·시의원이 참석하였고, 갑작스런 방문에도 새마을단체, 인근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변함없는 애정으로 열렬한 환영을 했다.

박 前대통령은 추모관에서 헌화·참배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 내외의 사진을 둘러본 후 환영나온 인근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각별한 인사를 하였다.

박 前대통령은 올해가 육영수 여사 서거 49주기이고 아버지 생가를 한동안

찾지 못해 방문했다고 밝히며 민족중흥관과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을 꼼꼼히 둘러봤다.

박 前대통령은 2021년 9월 28일 개관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전시관에서 박정희 대통령 취임 영상과 조국 근대화, 수출중대 관련 자료를 둘러보고 부모님의 생전 소품인 라이터와 시계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특히, 김창호 구미시장의 안내로 공간이 협소하여 모두 전시하지 못해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유품을 둘러보며, 박정희 대통령의 지방이와 육영수 여사가 사 용하시던 2단 책상과 자개소품함 등을

보고, 기억이 난다며 부모님에 대한 애뜻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수장고의 제습 및 관리가 잘 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하며 노고에 감사의 마음도 표하였다.

김창호 구미시장은 현재 유품 전시할 공간과 추모관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대로 된 박정희대통령기념시설 마련을 위해 용역중이라고 보고했고, 이에 동행한 유명하 변호사는 적절한 시기에 박근혜 前대통령께서 소장하고 있는 유품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창호 구미시장은 박 前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며 곁을 지킨 바 있고, 지난해 3월에는 대구 달성군



귀향을 환영하며 서거를 찾는 등 각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김동현/기자



## '충성! 안동 바로 알기를 명 받았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 안동시, 軍 일격여단 장병 대상 '문화관광 투어' 시작!

### 안동 복무하고도 안동 모르는 장병 多, 문화관광 투어 선물, 전역 후 재방문 기대 권기창 시장, "일격여단 장병 전역 후 가족·연인과 군 복무 시절 추억 새기고 안동 찾도록 문화관광 프로그램 외 다양한 혜택 마련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안동시가 육군 제50보병사단 일격여단 군 장병을 대상으로 이색적인 문화관광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16일, 도산권역 일원에서 제50보병사단 일격여단 군 장병을 대상

으로 '안동 바로 알기 투어'를 처음으로 진행했다. 이번 투어는 지난 7월 상호협력과 상생발전 업무 협약에 따른 것으로, 향후 총 4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지역방위와 재난·재해 복구에 앞장서 온 군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고, 주요 관광지 탐방을 통한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특히, '전역 후에도 다시 찾고 싶은 안동'이라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날 첫 투어에 참여한 장병들은 안동 시청 청백실에서 안동시 관광 홍보영상을 시청하며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하루 동안 도산권역을 중심으로 ▲ 퇴계이항 선생의 삶과 선비 정신이 깃든 도산서원을 관람하고 ▲ 물 위의 산책로 선성수상길도 탐방했다. 이어, ▲ 유교문화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유교문화박물관과 함께 ▲ 조선시대 산성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끽하며 투어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 진행된 3D 의병전쟁 체험과 활쏘기 체험은 MZ세대들이 선호하는 활동성 높은 체험 프로그램으로 장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안동시 시와 육군 50사단은 지난 7월 11일 업무협약을 통해 승현

동 일격여단 연병장 일대 체육공원 조성, 사단 장병 및 가족들의 안동 주요 관광지 할인과 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사단장병 차전놀이 경연대회 개최 및 지역축제 참여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일격여단 군장병이 전역 후에도 가족, 연인들과 함께 군 복무 시절 향수와 추억을 되새기며 안동을 찾을 수 있도록 문화관광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광역자활센터, 예천 벌방리 임시주택 입주청소 지원

## 임시주택 11동 입주청소, 추가설치 주택도 지원해나갈 것

지난달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온정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황진석)에서도 이재민들을 위해 힘을 보탤다.

경북광역자활센터는 지난 16일(수), 상주 자활기업 '신나는 빗자루'와 함께 예천 감천면 벌방리에 설치된 임시조립주택 11동에 대한 입주청소와 방역소독을 지원했다.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임시주택 입주 시부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

도록 지원해 이재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자 한다.

경북광역자활센터의 임시조립주택에 대한 입주청소 지원은 예천 벌방리를 시작으로 향후 효자면 백석리와 명봉리에 설치될 임시주택에 대해서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황진석 경북광역자활센터장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재민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나서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도형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

역 주민을 위해 많은 분들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린다"라며 "경북도에서는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거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설립된 경북광역자활센터는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인프라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활사업의 성장을 위한 노력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 울진군, 8월 2차 민선 8기 주요 현안 및 공약사항 점검 회의 개최

## 손병복 울진군수, '군청사 증축 용역은 공청회 군민 의사를 수렴, 정책과제 발굴 용역 중 울진군 기업승계 청년 지원사업은 내용 보완 본예산 신청 할 것' 당부

울진군은 지난 1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군수, 부군수, 국장, 정책홍보관, 실장, 관련 부서 과장 및 팀장 등이 참석하여 8월 2차 민선 8기 주요 현안 및 공약사항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군청사 증축 사전 기획 용역 ▲울진군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추진 상황 및 문제점 검토와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군청사 증축 사전 기획 용역은 공청회를 거쳐 군민의 의사를 수렴해야 하며, 정책과제 발굴 용역 중 울진군 기업승계 청년 지원사업은 내용을 보완해서 본예산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문화/기자



# 활력 넘치는 대구를 위해 사회적경제 재도약!

## 8월 17(목) 오후 2시 엑스코 서관 324호에서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영국 프레스턴 모델(청년이 다시찾는 도시)을 통해 활력있는 대구 기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활성화 정책과 사회적경제 협업 방안

대구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날과 주간에 기념하기 위해 '활력 있는 대구,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오는 17일(목)오후2시, 엑스코 서관에서 기념행사/포럼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대구가 활력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준비했다.

2023년 4월 개최된 UN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정책개발과 지원전략 수립(국가-지역 단위)을 권고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면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포럼은 우선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조강연으로 현재 경제환경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과 사회적경제와의 연계점을 살피고, 나아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활성화 전략을 다룬다.

이후 진행되는 첫 번째 토론회는 영국의 대표적인 지역활성화 성공 도시인 프레스턴 모델을 통해 '쇠퇴하는 도시에서 청년들이 다시 찾아오는 도시'로의 전환

사례를 살펴보고 대구지역 사회적경제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토론회는 지역활성화 정책으로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의 현황 파악과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경제가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안중근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앞장서온 사회적경제가 대구를 활력있게 하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중요한 포럼"이라며, "사회적경제의 소중한 가치와 역할을 시민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3 대구 EXCO 서관 324호

2023. 8. 17. (목) 오후 2시

주요 내용: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날 기념,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역할 모색, 순환경제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의 역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전략.

# 영양군, 2023년 을지연습 사전준비보고회 개최

## 오도창 영양군수, '위기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행정기능을 수행해, 주민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위기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3박 4일 동안 을지연습에 최선을 다해 달라' 당부

영양군은 지난 14일, 오도창 영양군수 주재로 국·소장, 실·과장 등 간부 공무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을지연습 사전 준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을지연습을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일차별 세부 일정을 보고하고 23일있을 실제훈련 및 을지연습 연계 민방위 대피훈련 세부실시계획을 설명하고 토론하였다.

이번 2023년 을지연습은 위기 상황시 비상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반영한 실제훈련, 기관장 과제 토의, 사건을 가정하여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도상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쟁 이전에 국지



# 경주시,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경북도 우수기관 선정

## 신속한 집중안전점검 위한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등 안전점검 실효성 확보 주낙영 시장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경주가 되도록 최선 노력"

경주시가 경북도 주관 '2023년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올해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성과를 평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관을 표창하는 것으로 경주시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경북도 내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2015년부터 재난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중앙부처·지자체·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안전운동이다.

매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정해 재난 및 사고발생 우려 시설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오고 있다.

경주시는 노후·위험·취약시설 10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가 하면 보수·보강을 위한 긴급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특히 주낙영 시장과 김성학 부시장의 추진 점검 회의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여러 차례 현장점검에 동행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경주시는 안전점검의 실효성 및 기관장 참여점검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경북도 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평가지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지 △안전점검의 실효성 △안전점검 확산 실적 △안전점검 환류 적절성 △안전점검 결과공개 및 이력관리 노력도 등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년 연속 집중안전점검 평가 결과 경북도 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경주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 축구 유망주들의 축제 '2023 영덕 풋볼페스타' 성료

## 선수·가족·주민 함께하는 축제로 축구 산업화 앞장



전국 '2023 영덕 풋볼페스타'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영덕군민운동장과 강구대체육구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53년 역사의 축구 전문지 베스트일레본이 주최하고 영덕군축구협회와 베스트일레본이 주관했으며, 영덕군과 영덕군체육회가 후원했다.

올해 풋볼페스타엔 선수단 가족 포함 1,200여 명, 전국 24개 유소년 축구클럽팀이 참가해 열띤 선의의 경쟁을 펼쳐 지난 13일 강구대체육구장에서 열린 U-8 결승전에선 승부차기의 접전 끝에 칠곡FC가 리스펙트B 팀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14일 영덕군민운동장에서 치러진 U-12 결승전은 청주FC가 해오름FC를 꺾었으며, U-10 결승전에선 해오름FC가 리스펙트FC를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특히 U-12, U-10 결승전은

포항MBC 전문해설진이 참여한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를 통해 현장감과 흥미를 더욱 높였으며, 오는 26일 15시 포항MBC에서 녹화 중계방송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영덕군과 베스트일레본은 올해 풋볼페스타 프로그램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2023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 축구 체험사업'을 진행해 꿈나무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해당 프로그램엔 영덕군 유·청소년 150명이 참여해 대한축구협회 전임 지도자와 축구 전문지도 강사가 제공하는 체계적인 지도를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우수선수 5명을 최종 선발해 국가대표 김민재 선수가 최근 입단한 독일 명문 '바이에른 뮌헨' 구단으로 해외 선진 축구 체험의 기회도 주어진다.

또한 다음 달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월드컵 국가대표 레전드들로 구성된 축구사랑나눔FC(대표 김주성)와 영덕 지역 축구동호인의 자선경기, 사

인 행사, 유소년축구 클리닉 등이 진행되는 '축구 레전드들과 함께하는 풋볼페스타'를 열고 이를 통해 조성한 기부금을 지역 유·청소년과 주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군은 영덕풋볼페스타를 일반적 축구대회가 아닌 참가 선수와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 함께 즐기는 신개념 축구 축제로 발전, 축구 꿈나무 육성 및 축구 저변 확대, 스포츠·관광 중심 도시로서의 홍보는 물론 지역의 관광·레저·역사·문화를 아우르는 축구 산업을 도모하고 있다.

윤사원 시설체육사업소장은 "2023 영덕 풋볼페스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우리 군이 스포츠 관광도시이자 유소년축구 메카로서의 면모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고 평하며, "앞으로도 전국 단위 축구대회와 축제를 성사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구 프로그램을 발굴함으로써 지역 체육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 청송군, 2023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개최

## '2023 을지연습'철저히 준비, 국가비상 대비 역량 제고 윤경희 청송군수, '이번 을지연습으로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길'부탁드려

청송군은 지난 16일(수),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3년 3분기 청송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윤경희 청송군수와 권태준 군의회 의장 등 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8월 21일(월)부터 실시되는 을지연습 전반에 대해 토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 연습을 더욱 철저하게 하기 위해 상황조정 및 계획보고, 통합방위 선포 연습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청송군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윤경희 청송군수는 "국가안보 및 복합재난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지역안보태세 확립은 물론 군민 안전을 위한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체계 구축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





# 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202건 적발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 증개한 공인중개사 등 도내 공인중개사 716명 대상



경상남도는 5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총 202건의 위반행위를 적

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시군, 공인중개사협회

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증개한 공인중개사 20명과 도내 18개 시군에서 자체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공인중개사 696명, 총 716명의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합동단속반은 특별점검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 ▲계약서 미보관 1건 ▲거래계약서 작성 및 증개대상을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4건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2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 ▲중개대상을 표시·광고 위반 및 증개대상을 확인·설명 미흡 등 총 202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부과 41건의 행정처분(54건)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위반사항 145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며, 하반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성실 중개 및 책임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오는 10월 19일부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고 강조하면서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서비스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과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 하남시, "1회용품 사용 안돼요" 규제대상 업소 특별지도·점검

7~11일까지 미사문화거리에 위치한 휴게·일반음식점 대상 1회용품 특별지도·점검

하남시는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미사문화거리에 위치한 휴게·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1회용품 특별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규제품목이 확대·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

하남시는 시행규칙 일부 개정 내용 및 계도기간 종료일시 안내 등을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특히 여름철 사용량이 급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에서 안내한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 금지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 금지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 응원용품 사용 금지 ▲편의점·슈퍼마켓(33㎡ 이상)에서 비닐봉투 및 비닐쇼핑백 사용 금지 등이다.

아울러 하남시는 1회용품 규제품목의 계도기간이 올해 11월 23일자로 종료됨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규제품목을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조치도 함께 진행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며 "우리사회에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소에서는 규제대상 품목을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민들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병상/기자

# 부천시, 여름철 정전사고 대비 공동주택 전기실 점검 나서

정전사태 예방 및 향후 노후 변전설비 대책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부천시는 최근 여름철 전력사용 증가로 인한 공동주택 변압기 과부하 등 정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라 지난 8일 공동주택 전기실 운영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소규모공동주택 3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인 건축사 및 주택관리사, 전기 기술사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지원단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변압기 및 발전기 관리 상태 ▲정전시 대응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관리 ▲소화설비 및 전기점검 개인보호장비 비치 등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점검과정을 참관한 공동주택 주

민은 "한국전력공사 업무범위 밖의 전기선 등은 주인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며 "부천시에서 현장점검 민간전문가 자문 등 대안을 제시해 주어 전기배선 합선 등으로 인한 정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입주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 변압기 등 전기시설 점검 등 행정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물인 전기실 내 변압기 및 노후전선 등 교체와 유지·보수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상휘 부천시 주택국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관리주체는 입주주민이 건

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철을 지낼 수 있도록 정전사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영기/기자



# 남구, 위생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위생모 미착용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울산 남구는 8월부터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종사자가 음식을 조리하거나 포장할 경우 반드시 위생모를 착용하여 안전한 음식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지난해부터 위생모 착용 의무정착을 위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모 지원 사업을 추진하

고 위생모 지원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나 일부 업소에서 덮고 귀찮다는 이유로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영업주 위생의식 개선과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와 지도점검 시에 위생모 착용 홍보스티커와 안내문을 배부하고 미착용업소는 현

장 계도한 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현수막, SNS, 반상회보, 홍보매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위생모 착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청결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모 착용 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진/기자



# 광주시, 식품 운반 차량 및 유통물류센터 지도·점검

광주시는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3일간 식품 냉동·냉장 업소 및 대형 식품 물류센터 등으로 진출입하는 식품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온라인 식품 유통 규모 증가로 하절기 대비 식품 부패 및 변질 우려가 있는 냉장·냉동식품의 온도관리 등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냉장제품 0~10°C, 냉동제품 -18°C이하 보관·유통) ▲온도 조작 장치 설치 여부 ▲무표시 제품, 유통(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운반 여부 ▲유산균 음료, 어류·조개류 등을 운반할 경우 식품운반업 영업 신고 여부 등

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쉽게 온라인으로 식품을 주문해 섭취할 수 있는 만큼 덥고 습한 하절기에 식품 부패 및 변질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냉장·냉동식품의 유통과정 온도관리 등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식품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상/기자



**광명동굴에서 만나요**

GM 광명도시공사 Gwangmyeong Urban Corporation

광명동굴 GWANGMYEONG CAVE



#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민과 함께!” 희망브리지, 강원 태풍 피해지역 긴급구호

### 7월 개소한 강원지사 중심 대응... 고성, 강릉, 속초 등 집중 구호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는 희망브리지가 있었다.

구호모금 전문기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본 도내 피해지역에 긴급 구호물품 5만3천여점을 지원했고, 세탁차량 1대, 휠링버스 1대를 운영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의 중심에는 희망브리지 강원지사가 있었다. 지난 7월 강릉영동대학교에 개소한 강원지사는 권혁순 지사장과 고광선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피해지역인 고성, 강릉, 속초 현장을 살펴보고 필요 물품을 신속히 지원했다. 태풍이 상륙하기 전인 9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구호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약1만평 규모의 파주 재해구호물류센터에서 긴급 출고한 이번 구호물품은 대피소 칸막이 112동, 생수 45,140병, 컵라면 7.728개, 수건 300매, LG헬로비전의 후원으로 제작된 이재민구호키트 84세트 등 총 53,364점이다.

희망브리지 김정희 사무총장은 “이번 태풍으로 강원, 특히 영동지역의 피해가 심각하다”라며, “태풍은 지나갔지만 이재민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기에 희망브리지는 계속해서 현장을 살펴 필요 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1조 6천억 원의 성금과 6천만 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누적 지원했고, 2019년 강원산불, 2022년 동해안산불, 2023년 강릉산불, 재난시 정성어린 국민성금을 모금하여 이재민들에게 지원했다.

특히 공익법인 평가기관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하는 공익법인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는 등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배분하며 집행해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이동원/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 "둔포면, 충남 북부권 중심 관문 될 것"

### '제72회 둔포면민의 날 문화체육한마당' 성황리 개최

'제72회 둔포면민의 날 문화체육한마당'이 15일 둔포중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둔포면민의 날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박경귀 아산시장을 비롯해 김희영 시의회 의장과 이명수·강훈식 국회의원, 도의원·시의원 및 둔포면 기관단체장 등 내빈과 둔포면민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유공자 표창에는 △자랑스러운 면민상 김창수 △사회봉사상 유영숙 △효부상 송순정 △참사랑상 이홍찬 △특별상 성영기(경제부분), 정연오(체육부분) △감사패 이은배, 전병천, 고광혁 △공로패 김홍주, 정순정 △충남도지사상 임종길 △아산시장상 윤정주, 견문주 △아산시의회 의장상 이영민, 고은혁 △국회의원상 한금진, 이원복, 이인규, 이재민 등이 수상 영광을 안았다.

본격적인 행사는 내빈들의 축구공 시구로 힘찬 시작을 알렸으며, 주 행사장(둔포중학교)에서는 학구별 명랑운동회와 어린이 사생대회가 펼쳐졌다.

또 2개의 축구장에서는 6팀의 축구 경기가 진행됐고, 둔포면 구도심과 신도심을 두루 돌아오는 10km 코스로 화합의 의미를 담은 마라톤 대회도 진행됐다.

올해 처음 출범한 주민자치회는 제1회 주민 총회를 통해 결정된 의제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수강자들의 실력도 선보였다.

특히 면민가요제 때는 둔포면민들의 흥이 한껏 올랐다. 초대 가수 김혜연, 문연주가 노래할 때 둔포면민들의 단합된 분위기가 최고조로 올랐다. 뒤이어

폐막식의 화려한 불꽃놀이를 끝으로 성대하게 축제의 막을 내렸다.

박경귀 시장은 “둔포면은 17개 읍면동 중 가장 결집이 잘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면민이 화합하는 곳”이라며 “아산의 변방으로 여겨졌던 둔포는 새로 태어나고 있다. 아산 북부권 발전의 핵심지역이자, 수도권과 중부권 연결 관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전엔 '아산밖은밭·맑은배'를 생산하는 농업지역이었지만, 경쟁력 있는 많은 기업과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 사업', '둔포국민체육센터', '북아산고' 개교 등이 이뤄지면 산업도시이자 문화·교육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연 면민의 날 추진위원장은 “올해는 비가 오지 않아 더할 나위 없이 즐겁고 좋은 날이 됐다.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길 바란다”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후원자와 면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경만 둔포면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둔포면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나가는 뜻깊은 날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면민이 함께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해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둔포면민의 날 행사'는 6·25전쟁 시절인 지난 1952년 8.15 광복절을 경축한 마을 대항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개최하지 못한 2회를 제외하고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오고 있다. 이는 면 단위 행사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김원호/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 “국가·국민 위해 흘린 땀 기억할 것”

### 김태흠 지사, 잼버리 지원 기관·기업·대학·공무원에 고마움 전해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14일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힘써준 도내 기관·기업·대학·공무원 등에 서한문을 보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도는 지난 6일 폭염 등으로 정부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확대 운영을 결정함에 따라 대원들을 위한 숙소 마련하고 보령머드축제, 공주·부여 역사·문화 체험 등 다양한 도내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다.

도내에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스웨덴, 세네갈, 카메룬 등 25개국 4000여 명의 대원들이 7개 시군 17개 시설에 분산 배치돼 머물렀으며, 행정부지사는 단장으로 한 지원단은 대원들이 안전하게 머물다 귀국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펼쳤다.

도내에서는 도·시군 공무원 800여 명을 투입했고 40여 개 기관·기업·대학이 잼버리 지원에 참여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숙소(기숙사·연수원) 지원, 의료(의사·간호사 파견) 지원, 생필품·식료품 후원, 체험 프로그램 자원봉사 등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애써주신 각 기관·기업·대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면서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잼버리 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4000여 명의 세계 청소년들은 충남에서의 3박 4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추억할 것”이라며 “그 경험과 기억이 충남을 다시 찾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어려움에 처한 잼버리 대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처럼 우리 기관·기업이 가는 길에 도가 동행하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도·시군 공무원에게도 문자(SMS)를 통해 “도와 7개 시군 공무원의 땀과 노력으로 잼버리 대회를 무사히 마쳤다. 당혹스러운 지원 근무에도 속박, 급식, 인솔, 안내 등에 최선을 다해 대처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우리 공무원 가족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 신청 접수

### 9월 1일부터 잔여분 32억 원에 대해 추가 신청 접수

원주시는 9월 1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난 3월 총 185개 기업에 추천한 390억 원의 자금 중 융자추천 기한이 실효되어 미실행된 잔여분 32억 원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원주시에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융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3억 원까지 지원하며, 시설 자금은 소요액의 75% 범위 내에서 제조업은 8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단,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융자금에 대한 금리 일부(3.0%~3.5%)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원주시는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이자를 지원받고 있는 대출자에게 올해 2분기 이차분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6%까지 이차차액을 보전해주고 있으며, 이번 추가 신청을 통한 신규 대출 기업에게도 한시적으로 이차 차액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청 홈페이지(2023년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잔여분 추가 지원 계획)를 참고하면 된다.



이태영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이번 추가 지원 사업은 잔여분 모집으로 많은 자금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중소기업

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2023 천안여성 일자리 페스티벌' 오는 24일 개최

### 천안여성의 일자리와 유망직종을 연결하는 취창업 축제의 장

'천안 여성 일자리 페스티벌(Festival)'이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천안YWCA여성인력개발센터 4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천안시가 주관하고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천안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 및 여성구직자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다.

채용관에서는 사무·회계직, 생산직, 의료·보건직, 사회복지서비스직, 조리직, 미화직 등 현장 면접이 이루어지고, 간접 채용관도 함께 운영한다.

직접 체험관에서는 '챗지피티(ChatGPT) 콘텐츠 제작, 온라인판매기초, 실버인공지능지도사 자격증,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융합코딩 등 신 유망직종 교육설명회를 진행한다.

창업관에서는 개인맞춤형 창업컨설팅, 기초건강검진관과 홍보관을 운영한다.

부대행사는 퍼스널컬러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편집, 직업선호도 검사 등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현장 방문 후 참여 가능한 누리소통망(SNS) 이벤트, 커피와 쿠키, 퓨전떡 체험 등도 함께 진행한다.

김원호/기자



# 태백시, 김상운 중앙대학교 교수 초청 '청년 레벨업 아카데미' 개최

### 김태흠 지사, 잼버리 지원 기관·기업·대학·공무원에 고마움 전해

**청년 역량 레벨업 아카데미**

**챗GPT는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

초거대 AI전성 시대, 보고서 작성을 넘어서 인공지능도 창작하는 시대가 왔다  
'똑똑한 챗GPT 활용법'을 실제 챗GPT 사용 시연까지!

**8월 17일(수) 15:00**  
태백문화체육회관 소공연장

김상운 교수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태백시는 오는 17일 오후 3시 문화체육회관 소공연장에서 청년 역량 레벨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챗GPT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라는 주제로 김상운 중앙대학교 교수가 초청되어, 챗GPT의 탄생부터 독특한 활용방안, 인공지능 창작의 시대까지 인공지능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강연을 맡은 김상운 교수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연구교수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객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며, 세계경제포럼(WEF) 4차 산업혁명 전문가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그는 '메타 리치의 시대', '미래 시나리오 2022, 2021' 등을 저술했고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와 미래 모습을 제시하는 '디지털 융합 멘토'로 활발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청년들의 기본소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태백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매월 1회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6월과 7월에는 테크노와 문화기획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9월에는 마지막 아카데미가 개최될 예정이다.

▲ 9월 12일 이수진(서울대학교 소비자트렌트분석센터 연구위원) '트렌드 코리아'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들은 미래 변화를 읽고, 디지털 대전환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각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교양을 습득할 수 있다.

유상근/기자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환경에너지솔루션 환경 센터 유지관리 솔루션 실증 진행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 증개한 공인중개사 등 도내 공인중개사 716명 대상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환경에너지 솔루션이 주관하는 '2023 지역 특화산업 기술창업 활성화(탄소중립 개방형 혁신 플랫폼)사업' 최종 선정된 공조·환경·안전 솔루션 분야 스타트업인 제이씨씨솔루션이 현장 실증사업(PoC)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이씨씨솔루션은 국내 최대 종합환경 플랫폼 기업인 환경에너지솔루션에서 운영 중인 환경센터 적용 진동시각화 실용성 실증 등을 위한 운영 테스트 및 협업을 진행한다.

이번 실증사업은 환경에너지솔루션에서 건설 사업 예정인 환경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센터란 지역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이다.

제이씨씨솔루션은 진동센서를 통한 기기, 제어반 모니터링으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 클라우드를 이용한 원격 감시 제어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제이씨씨솔루션은 환경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국내 여러 환경센터에서 실증 테스트를 거친 뒤, 하반기 제품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강희준 센터장은 "공조 & 센서 및 원격자동화 분야 솔루션 기반 우수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과의 협업 및 지속적인 경험을 토대로 신사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며, 상생 협력 강화와 ESG 경영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 지역 특화산업 기술창업 활성화(탄소중립 개방형 혁신 플랫폼)사업'은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을 통해 사업협력(및업&포c)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우수한 기술력과 서비스를 가진 스타트업에게 시장 검증·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5월 전국 친환경·에너지 및 ESG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제이씨씨솔루션이 최종 선정됐다.

최정근/기자



# 강원도내 수출기업, 강원대 GTEP사업단과 맞손잡고,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홍콩 식품 박람회 참가

'제72회 둔포면민의 날 문화체육한마당' 성황리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와 도 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강원 수출 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오는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홍콩 식품 박람회'에 참가한다.

'홍콩 식품 박람회'는 매년 8월 홍콩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식품 박람회로써 최초 1990년부터 올해까지 33년째 지속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40만명 이상의 바이어와 관람객이 방문한다.

'강원 수출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혁신역량을 보유한 도내 수출 초보기업을 발굴하여 무역 실무 교육, 컨설팅, 해외 시장 개척 등을 통해 글로벌 수출기업을 도약시켜 수출증대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2개사가 참여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기준 6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고 있다.

올해 개최되는 '홍콩 식품 박람회'에는 수출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22개사 중 식품기업 7개사(육두식품, 뽕간화덕푸드, 동화푸드, 에스지인 테네셔널, 엔초이스, 설악산그린푸드, 강원수출)가 참가하여 핫도그, 냉동피

자, 젓갈, 과일, 마죽 등 도내 우수 식품을 전시하여 현장판매 및 바이어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강원대 청년무역인재양성사업단(GTEP사업단) 소속 대학생 6팀 30명이 참가한다. 강원대 사업단이 도내 기업과 연계하는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참가한 대학생들은 도내 7개 기업과 협업하여 바이어 상담, 통역, 상품구매 홍보 등 현지 마케팅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무역에 대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고 도내 기업체에서는 별도의 현지 인력채용 없이 박람회를 운영할 수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홍콩은 무관세로 진출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이점이 있기에 이번 홍콩 식품 박람회에 참가하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면서 "강원대 청년무역인재양성사업단 학생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진출 사업을 발굴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이행점검 개시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 원 부과 내용의 의결서를 송부하고 시정조치 집행 개시 및 이행점검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2023년 7월 말 구글에 송부하고 시정조치의 집행을 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힘을 이용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윈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후발주자인 윈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하여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영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 회복은 매우 중요한바, 본건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본건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최광수/기자



# 특허청, 키프리스 개선 마법사 '키리포터즈' 활동 시작

특허청, '23년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응원단(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특허청은 8월 11일 14시 세바시 X 데마코홀(서울시 강남구)에서 대국민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를 홍보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3년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응원단(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응원단(서포터즈)은 특허정보 검색서비스(키프리스)를 모험하며 마법같이 바꿔준다는 의미로 '키프리스'와 '해리포터'를 합쳐 '키리포터즈'라는 별칭을 붙였고, 지난 7월 공개 모집을 통해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이용자 가운데 20명을 선발했다.

키리포터즈는 8월 11일부터 9월 29일까지 활동하면서, 특허정보 검색서비스(키프리스)를 외국의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와 비교 체험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특허청은 활동이 우수한 키리포터즈에게 특허청상장과 포상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기범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키리포터즈는 다양한 연령과 직종을 가진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이용자로 구성된 만큼 폭넓은 사용자들의 관점에서 좋은 의견들이 개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활동을 통해 나온 의견들을 특허정보검색서비스 고도화에 충실히 반영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경북교육청, '경북형 한울타리유치원' 사업 추진

도심 소규모 병설유치원 재구조화, 2024년부터 시범 운영  
임종식 교육감, "학부모와 학교장, 교사 등의 의견 수렴, '경북형 한울타리유치원' 시범운영사업의 현장 안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경북교육청은 도심지역 1학급 규모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재구조화하는 '경북형 한울타리유치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출생률 저하에 대응해 소규모 공립유치원의 취원율과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경북형 한울타리유치원'은 도심지역 소규모 병설유치원 3개 내외를 3학급 이상의 중심유치원으로 통합해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통학버스 운영 ▲온종일 돌봄 운영 등 늘어난 원아 수에 따라 맞춤

형 교육을 제공하는 유치원이다. 그동안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동일 연령의 또래 집단에서 배울 수 있는 사회적 발달 저해, 다양한 교육활동과 프로그램 미흡, 이를 위한 공간 부족, 교사의 업무 과중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경북형 한울타리유치원'을 선정해 유아 수와 관계없이 만 3, 4, 5세 연령별로 학급을 개설하고, 유치원 원감과 보직교사를 배치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방과후과정 전담사, 유치원 교무

행정사, 행정실 인력을 추가 배치해 구성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교육활동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방과후활동운영비 지원 등 단설유치원 급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1학급 병설유치원은 296개원으로 읍·면 지역 병설유치원 244개원은 유아들의 최소한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재구조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군·구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2024년부터 추진할 중심유치원은 ▲

통합지역 내 병설유치원 간 거리와 통학여건 ▲도심 재개발 ▲집단 거주 지역 인구 변화에 따른 향후 취원 대상 원아수 ▲학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2023년 10월 확정)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저출생으로 인해 증가하는 소규모 유치원을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하고 학부모와 학교장, 교사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경북형 한울타리유치원' 시범운영사업의 현장 안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2024년 본예산 편성 작업 본격화!

2024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은 지난 16일(수), 화백 산업무 담당 및 담당자 83명을 대상으로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예

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024년 본예산 편성 방향과 기준, 새롭게 도입된 맞춤형 예산관리시스템(UBIS) 사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수 내용은 ▲본예산 예산편성 방향과 세부 계획 ▲세입·세출 편성 기준과 주요 개정 사항 ▲맞춤형 예산관리시스템(UBIS) 사용법 등이다. 특히 내년에는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경북미래교육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지원과 전략적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맞춤형 예산관리시스템(UBIS)'의 안정적 정착

을 위해 시스템 사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모든 사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매뉴얼과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최선지 정책국장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필수 사업과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우선 편성해 예산낭비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11일, '2024년 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계획'을 안내했으며, 예산요구서 심사와 집중 작업을 거쳐 10월 말까지 예산안을 확정하고 경북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 전남교육청, 교육공동체 의견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소통 나선다

전남교육청, 학생·교원·학부모·지역사회 의견 수렴... 표준안 내년 보급·적용

전라남도교육청이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 중인 가운데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 주목된다. 전남교육청은 TF가 개발 추진 중인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초안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1일 온라인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소통 대장정을 두 달여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학교규칙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자 교원과 학부모의 생활지도의 지침서로 꼽힌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으로 완성한 후 2024년 전남 모든 학교에 보급해 개정·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 3월부터 TF를 꾸려 개발 중인 초·중등 급별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은 교육공동체 '생활협약'과 '학교생활규정'으로 나뉜다. 생활협약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온전한 교육을 위해 합의하는 선언문이며 학교생활규정은 총칙, 학생의 권리와 책임,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 지역사회의 역할, 제정·개정 절차 순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개발한 학교생활규정은 9월 초·중·고 20개 학교에 시범 적용해 단

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소통 대장정'을 통해 22개 시·군 생활교육 담당 장학사, 교원단체, 전남학생회, 전남학부모연합과 만남을 갖고 학교생활규정 개정 표준안 내용과 관련한 협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어 전남 교원들과는 목표·역수·순천 등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다. '소통 대장정'은 동부권역 10월 30일, 서부권역 11월 1일 두 차례에 걸친 전남교육청 공청회 및 생활협약 선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뤄 상호 존중해야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소통 대장정을 통해 교육 정상화를 고민하는 전남교육가족의 절박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제78주년 광복절에 독립운동가 채기중 알리기 행사 실시

풍기북부초, 광복절 기념식에 참가하고 채기중 굿즈 나눠주며 홍보  
송명원 지도교사, "채기중 이름이 아이들의 가슴 속 깊이 새겨지기를 바란다."고 밝혀

풍기북부초등학교(교장 최영일) 역사동아리 5, 6학년 학생 10여명은 8월 15일(화) 영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가하고, 독립운동가인 소용 채기중 선생님을 영주시민들에게 알리는 독립운동길 탐방 3차 활동을 실시했다. 1913년 풍기에서 대한광복단을 조직한 '소용 채기중의 길을 따라서'라는 주제의 마지막 활동으로 진행된 이번 3차 탐방은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 채기중

선생님을 영주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으로, 채기중 선생님의 생가와 서대문형무소,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1, 2차 탐방을 마친 풍기북부초 역사동아리 학생들이 7월 한 달 동안 학교에서 함께 만든 채기중 선생님의 캐릭터와 글이 담긴 머그컵 250개를 '대한광복단 창단 110주년 특별전시회'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홍보활동을 했다. 3차 독립운동길 탐방에 참여한 6학년 전민철 학생은 "8월 15일 광복절에 채

기중 선생님을 영주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 더 기뻐했다. 우리가 직접 만든 컵을 사용하며 많은 사람들이 채기중 선생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송명원 지도교사는 "작년에는 러시아 한인들의 페치카카인 최재형 독립운동가에 대해 공부를 했고, 올해는 대한광복단을 만든 채기중 선생님을 학생들과 함께 공부했다. '채기중' 이름 석자가 아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란다."며 독립운동길 탐방을 마무리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풍기북부초 학생들은 이날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에도 참석하여 뜻깊은 광복절을 보냈다. 윤근수/기자



# 배워서 실천하는 아이신나! 경상교육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교육공동체와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경험과 바른 성장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장 이방규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Gyeongsan Office of Education



# 꿈을 박는 재봉이, 금천구 살구경로무료급식센터에 손수 만든 인건 바지 전달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 증개한 공인중개사 등 도내 공인중개사 716명 대상

금천구는 8월 11일 자원봉사 동아리 '꿈을 박는 재봉이'에서 살구경로무료급식센터에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제작한 여름 바지 50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꿈을 박는 재봉이는 금천구에서 진행한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구 보조금을 지원받아 직접 여름 바지를 제작했다. 바지는 어르신들이 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편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촉감이 부드럽고 흡수성이 뛰어난 인건 소재로 제작됐다.

센터에서는 후원받은 여름 바지를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반찬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꿈을 박는 재봉이는 재봉기술 재능기부를 통해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층 주민에게 고갈 손잡이, 앞치마 등 직접 제작한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는 꿈을 박는 재봉이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구에서도 폭염을 대비해 어르신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박향신/기자



# 은평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열어

'은평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은평평화공원에서 지난 14일 열려

서울 은평구가 지난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2017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8월 14일은 1991년 고(故)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이다.

구는 기림의 날을 맞아 '은평 평화의 소녀상'이 위치한 은평평화공원에서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은평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평화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상징물이다. 구민

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2018년 8월 14일 은평평화공원에 건립됐다.

본 행사인 기념식은 이날 오후 7시 추모와 함께 기념사, 헌시낭독, 공연, 헌화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 사회부터 헌시 낭독, 공연에 이르기까지 지역 청소년들이 적극 나섰다.

또한 부대행사로 체험 부스와 전시회 등을 마련해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은 희망을 향한 나무부채 만들기, 평화를 염원하는 메시지 쓰기, 캐리커처와 사진으로 기림의 날 기억하기, 2022. 여성가족부 청소년 공모전 수상작, 위안부 할머니 작품, 은평 평화의 소녀상 건립 활동 사진 등을 관람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다시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를 향한 할머니들의 용기를 끝까지 기억하고 계승하겠다"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구민들과 함께 평화의 미래를 그려나가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 청송 군민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Happy 콘서트

윤경희 청송군수, "이번 콘서트가 무더위에 지친 군민 심신을 중요롭게 하는 시간이 되고, 더불어 주민 화합과 소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

2023. 8. 18 (목) pm 7:00



청송군은 오는 8월 18일(목) 저녁 7시부터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청송군민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Happy 콘서트'가 열린다고 밝혔다.

경북타악인회 누리오케스트라와 청송군민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는 이번 콘서트는 2023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퍼블릭 프로그램 '신바람 군민 오케스트라' 수강생들이 지난 6월부터 경북타악인회 단원들로 구성된 강사진과 호흡을 맞추며 준비해 왔으며, 그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1997년 경북타악기양상부로 창단되어 많은 연주활동을 해왔고, 해를 거듭할수록 음악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경북타악인회 누리오케스트라의 무대는 캄모벤드와 재즈보컬이 함께 하여 청송군민에게 음악으로 하나되는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콘서트가 무더위에 지친 군민의 심신을 중요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더불어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성동구, 광복절 태극기 달기 시범아파트 운영으로 애국심 함양에 앞장

서울 성동구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

구는 지난 2001년부터 새마을운동 성동구지회(회장 유영석) 주관으로 매년 구민의 애국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공동주택 중 한 곳을 선정하여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시범아파트로는 지난해에 이어 성수동에 위치한 독성 중앙하이츠빌을 선정했다.

새마을운동 성동구지회에서는 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독성 중앙하이츠빌 아파트 전 세대(256세대)가 해당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용 태극기를 배부하고 15일 광복절 당일까지 게양을 독려했다.

성동구는 국경일 전후 집중적으로 태극기 달기 사업을 추진하며 구민의 애국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해왔다. 주요 도로, 주요시설 및 공동주택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총 5회에 걸쳐 국경일 도로운행 가로기 게양 운동을 추진했고, 올해도 도선사거리

서 응봉사거리에 걸친 약 1.3km 구간 194기의 태극기가 게양된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를 운영하며 태극기의 오염 및 훼손에 대해 수시점검하고 국경일과 나라사랑 주간에 따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자유와 독립을 되찾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서울 중구의 종량제봉투가 새롭게 바뀝니다.

기존: 일반종량제봉투, 재활용종량제봉투, 음식물종량제봉투

변경안: 일반종량제봉투, 재활용종량제봉투, 음식물종량제봉투

변경안: 일반종량제봉투, 재활용종량제봉투, 음식물종량제봉투

# 서울 중구 종량제봉투, 글자 빼고 그림 더해 분리배출 쉽게

새로 디자인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그림 도안 활용해 분리배출 방법 시각화

서울 중구가 오는 9월부터 새롭게 바뀐 종량제봉투를 판매한다.

기존 종량제 봉투에는 쓰레기 배출법이 작은 글씨로 적혀있어 한 번에 알아보기 어려웠다. 이번에 출시한 종량제 봉투는 글자 수를 확 줄이고 그림 도안을 활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개선했다.

이번에 구가 새로 내놓은 봉투 디자인은 일반용, 재사용, 음식물용 등 3종이다. 봉투 색상도 주민들에게 익숙한 기존 색상(흰색, 분홍색, 노랑색)을 유지하고 그림은 검정으로

통일해 깔끔함을 더했다.

일반용과 재사용 종량제봉투엔 플라스틱류·병류·도자기류·음식물쓰레기·캔류·건전지류 그림에 사선을 그은 도안으로 배출법을 간결하게 표현했다.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에도 계란껍질·뼈·씨앗류·티백·생선뼈·단단한 껍데기에 사선을 그은 그림을 활용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면 안 되는 품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 쓰레기 배출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표기도 병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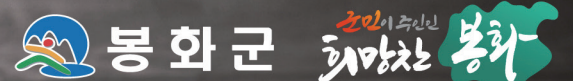
새 봉투가 나와도 이미 사둔 기존 종량제봉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판매가격은 같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종량제봉투의 그림을 보면 누구나 쉽게 쓰레기 분리배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하는 '2022 우수축산물브랜드' 선정

봉화 한약우 프라자



봉화 한약우

이동호 영리자리는 명품한우

봉화 한약우는 우수혈통으로 선별한 한우에

자연의 기를 머금은 한약재를 첨가한 사료로 사육한 명품 한우고기입니다.

한우의 부드러운 감칠맛과 함께 각종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한

참살이 건강식품으로, 청정지역 봉화군에서 무항균, 무항생제, 무농약의

생산조건으로 품질인증 받은 국내 고급브랜드 한우입니다.





# 영양 들어다보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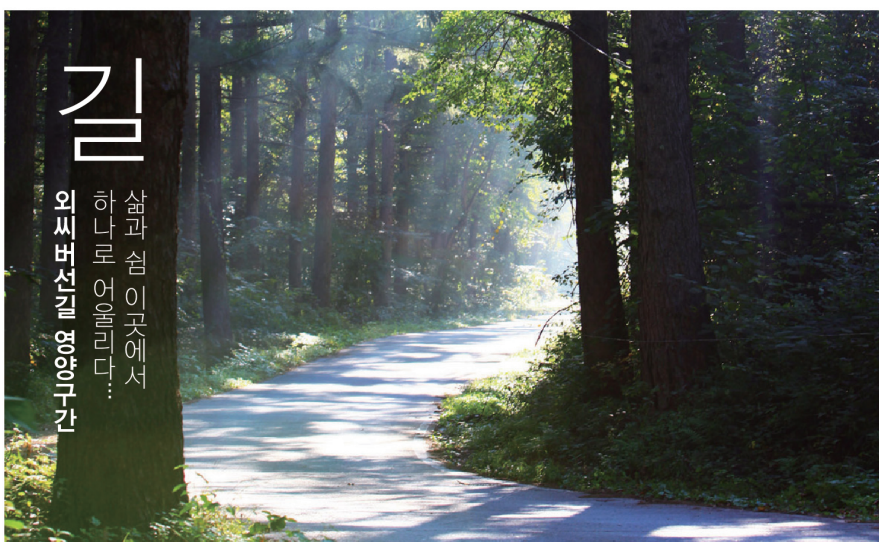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 Z O O 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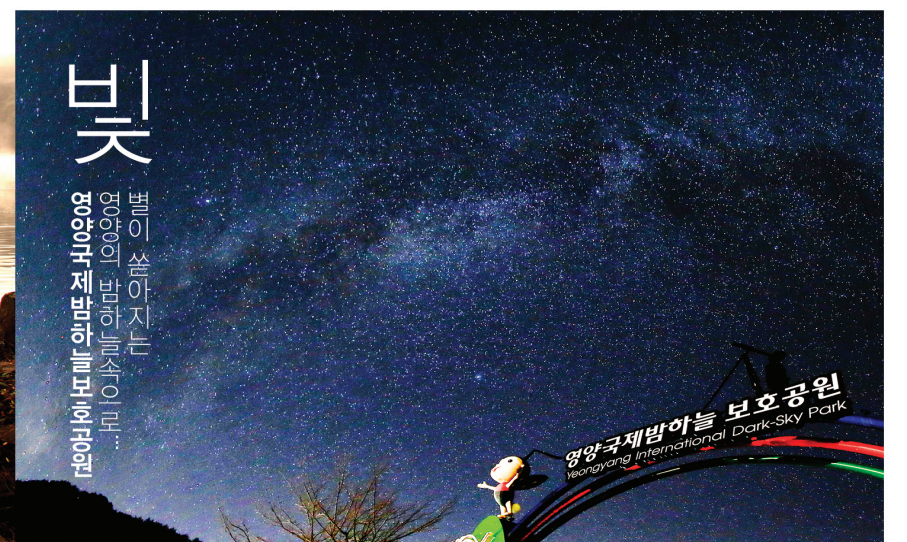
길

숲과 숲 이곳에서  
아름답게 오세요...  
영양국립자연휴양림



물

영양의 아름다움  
이제 다 보셨나요?  
영양국립자연휴양림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을 보시나요?  
영양국제밤하늘보존공원



얼

시냇물의 대가  
영양서식지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연서정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존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